

『누판고(鑄板考)』의 지식 세계와 조선 학술

정 호 훈*

1. 머리말
2. 『누판고』의 성립: 전국 책판의 파악과 체계화
3. 『누판고』의 도서와 조선 학술
 - 1) '중국 도서'의 종류와 성격
 - 2) '조선 도서'의 지식 세계와 학술계
4. 맺음말

1. 머리말

정조(正祖) 대(代) 조선의 학술 정책을 이끄는 기초의 하나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식 집성(集成)과 지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었다. 전국 단위의 지리지 편찬, 서목 및 해제서 편찬,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문헌 관련 도서의 편찬, 도서의 수집과 관리 등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은 영조 대에도 이미 나타났거니와 정조 대에 오면 제도적으로 정착되며 강력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조와 정부는 규장각(奎章閣)을 세우고 이 기구를 기반으로 국·내외 도서를 수집하고 정리하거나 새로운 책을 편찬·간행하고자 했다.¹⁾ 정조대에 편찬 간행된 수많은 종류의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 『규장총목』²⁾·『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부교수.

1) 정조대 간행한 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群書標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서표기』는 1799년에 1차로 완성되고, 정조 사후 1800년도의 편찬 도서를 추가하여 마무리되었다. 현전하는 『군서표기』의 異本은 1799년의 『홍재전서』 편집본에 실린 필사본, 1801년의 『홍재전서』 권179~184에 편입된 필사본, 그리고 1814년 整理字로 간행된 활자본 등 모두 3종이다(김문식, 1998 『弘齋全書』 해제).

서서목첨록(西序書目籤錄)』과 같은 서목(書目)은 그러한 작업의 한 성과물이다.

1796년(정조 20), 정조가 서유구(徐有集) 등 각신(閣臣)들로 하여금 편찬하게 한 『누판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산출된 중요한 성과였다. 이 책자는 서울과 8도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冊板)을 총 정리하고 있어 전국 소재 책판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책판의 내용 또한 간명하게 해제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열람자는 각 책판 별로, 책판의 소재지,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 책판의 완결(刊缺)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책판으로 찍은 책자의 저자, 책자의 내용 또한 습득할 수 있었다. 『누판고』는 18세기 후반 현재, 조선의 책판에 대한 정보서이자 그 책판으로 찍어내는 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는 해제집이었다.

정조 대, 규장각 및 각급 지방관의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여 완성한 『누판고』는 이전 시기에 나왔던 여러 책판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한다면, 18세기 말 조선의 지식 세계, 학술장의 모습을 어느 정도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조대 학술과 권력의 양상 또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누판고』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의 성과는 대체로 서지학의 영역에서 이 책의 내용을 밝히고 특성을 이해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³⁾ 정조대 문화와 학술, 서적 출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들 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판고』 속의 여러 정보 분석을 통하여, 정조 대 조선의 학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奎章總目』은 1781년(정조 5)에 처음 편찬되었으며(原本) 1805년(순조 5)에 다시 增補되었다(增補本). 이 책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글 참조. 정호훈, 2012 『《규장총목》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외래지식 집성』 『韓國文化』 57; 리상용, 2013 『《규장총목》의 목록 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박현순, 2018 『정조대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 『韓國文化』 82.

3) 리상용, 2005 『《누판고》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1; 리상용, 2012 『『누판고』의 목록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 옥영정, 2017 『경상감영 책판 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 『누판고(鑿板考)』와 『서책목록(書冊目錄)』을 중심으로』 『嶺南學』 61. 서유구가 『누판고』 편찬에 참여하는 사정은 徐命膺과 徐浩修, 徐澐修로 이어져 온 가문의 전통과도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함영대, 2017 『정조의 규장각 해제서목 작성과 서명용 일가』 『한국문화』 79 참조.

2. 『누판고』의 성립: 전국 책관의 파악과 체계화

『누판고』가 완성된 해는 1796년(정조 20)이다. 정조 대에 나온 여러 어정서(御定書)·명찬서(命撰書)⁴⁾에 비추어 본다면 비교적 늦게 편찬된 셈이다. 정조의 재위 기간으로 보더라도 『누판고』는 그의 치세 후기에 마무리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누판고』가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며 편찬되었음을 알려 준다. 실제 정조의 『누판고』 편찬 작업은 1776년 규장각을 세운 뒤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世祖朝에 대제학 梁誠之가 奎章閣을 두어서 御製와 圖籍을 보관할 것을 청하고 또 각 군현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冊板을 기록하여 典校署에 올려 보내고 이를 전교서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세조가 시행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주상이 즉위한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內苑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담당관을 두어 서적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양성지가 건의하였던 내용을 따른 것이다. 2년 뒤인 무술년(1778, 정조 2)에 각도에 下諭하여公私 간에 소장하고 있는 책관을 모두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여 규장각에서 그 보존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聖祖께서 뜻하신 일과 어진 재상의 계획이 비로소 질서 정연하게 펼쳐져 환하게 구비되었다.⁵⁾

『누판고』 범례의 기록이다. 『누판고』가 세조대 양성지의 기획을 계승하였다는 사실, 『누판고』 편찬이 정조 2년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양성지의 계획은 전국 군현의 책관을 중앙의 전교서(典校署)에서 일괄하여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군현의 책관 관리를 군현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에서 간여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지역에 무슨 책관이 있는지를 안다면, 중앙에서 책이 필요할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중복을 피해서 새로운 책을 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다가 정조가 규장각을 세우면서 구체화되었고, 『누판고』의 완성으로 귀결된 셈이었다.

4) 『弘齋全書』의 『群書標記』에서 국왕이 직접 편찬하면 御定書라 하고, 명령하여 편찬하면 命撰書라 하였다. 이 용어는 『누판고』에서의 御撰書, 御定書와 다르다.

5) 『鑊板考』 凡例: 『弘齋全書』 권184, 羣書標記6, 命撰2, 鑊板考七卷 寫本.

그 작업의 시발은 1778년, 공사(公私) 간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기록하여 올리라고 각도에 내린 명령이었다.⁶⁾ 이때 내린 명령은 공사의 책판을 포괄하고, 전국 팔도의 행정력을 구체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전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국왕의 국정 장악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왕위를 노리는 반대파의 정치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일은 애초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 책판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국왕의 명령은 처음에는 충실히 구현되지 않았었다. 1779년(정조 3), 경상도, 충청도의 조사 작업은 매우 부실하여 양도의 관찰사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⁷⁾

정조의 『누판고』 편찬 노력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먼저 각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장부, 곧 장관부(藏板簿)를 작성했다. 장관부에는 각도의 군현 단위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이름, 책판의 완결(剋缺) 상태, 도서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의 분량 등이 조사되어 기록되었다. 장관부는 한번 작성된 뒤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되며 관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782년(정조 6)에서 1785년(정조 9) 사이에 만들어진 『각도책판목록(各道册板目錄)』⁸⁾은 그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 목록에는 각도의 군현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이름, 책판의 완결(剋缺) 상태,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의 분량

6) 『鏤板考』 凡例 “當宁丙申初載, 置奎章閣于內苑, 建宮藏書, 多用誠之議. 粵二年戊戌, 下諭諸道, 公私所藏刊書板本, 並令計開錄上, 自本閣, 考察其存佚.”; 『弘齋全書』 권184, 羣書標記6, 命撰2, 鏤板考七卷寫本 “予於丙申, 置奎章閣于內苑, 建宮藏書, 多用誠之議. 粵二年戊戌, 下諭諸道公私所藏刊書板本, 並令計開錄上, 自本閣考察其存佚”. 이 과정에 대해서는 옥영정, 2017 『경상감영 책판 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 『누판고(鏤板考)』와 『서책목록(書册目錄)』을 중심으로, 『嶺南學』 61에서 이미 검토되었다.

7) 『日省錄』 1779년 11월 29일 “奎章閣啓言, 卽者洪忠監司李秉鼎, 慶尙監司洪樂彬修上列邑所在册板目錄中, 多有落漏, 已甚疏率, 至於洪忠道, 則册紙劣薄, 亦不粧續, 其在事體誠, 極未安. 兩道道臣推考警責, 使之改修正上送事, 請知委……允之.”

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이글에서는 정형우·윤병태 편저, 1995 『韓國의 册板目錄』 (하), 보경문화사 수록본 이용]. 이 책자는 편자를 알 수 없는 해서체의 필사본이다. 편찬 시기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洪忠道, 原春道로 표기하고 있는 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정조대 홍충도는 정조 2년부터 9년까지, 원춘도는 정조 6년부터 15년까지 사용했다(『正祖實錄』 권14, 6년 8월 2일 丙寅; 권32, 15년 1월 2일 丁丑).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과정은 책판을 그 내용과 성격에 맞추어 분류하는 한편으로 책판과 관련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해제하는 일이었다. 『누판고』의 개성은 이 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과정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누판고』는 기존의 장관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책판을 특별한 분류 체계에 맞추어 재배치하고, 각 책판이 가지는 여러 이야기를 해제 속에 녹였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해제자의 역할, 해제자의 능력이 크게 요청되었는데, 『누판고』의 해제자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책판과 연관된 학술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온전히 살아 있는 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가 중국과 조선에서 생산되었고 또 그 다루는 내용이 사상과 문화 전 영역을 포괄하기에, 정조는 이 일의 담당자로 최고 수준의 학자를 동원했다. 『규장총목』의 경험을 쌓은 적이 있던 서명응 가의 서유구(徐有渠)는 그 책임자였다.⁹⁾

요컨대, 『누판고』는 책판 정보의 수집, 장관부 정리 및 증보, 책판 정보의 해제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완성되었다. 이 책자는 책판 목록의 성과를 안으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초유의 경험이었다. 『누판고』 범례는 책이 만들어지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짧고 소략한 설명으로는 『누판고』 완성까지의 극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놓치지 않고 있다.

閣臣 등에게 명하여 나라 안팎의 藏板簿에서 취하여 部門을 나누고, 條例를 쪼개어 하나의 책자로 彙編하게 하였다. 卷帙의 많고 적음과 장관의 剋缺 여부를 성실하게 살피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로지 冊板만을 수록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鑿板考’라고 했다.¹⁰⁾

9) 『鑿板考』를 완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다만 담당자에 대해 『弘齋全書』에서는 “歲丙辰, 復命閣臣徐有渠取中外藏板簿, 分門類次, 彙成目錄, 每一書, 必標其撰人姓名義例大致”라고 하여 徐有渠 1인 만을 거론했고, 『鑿板考』의 범례에서는 “既又命閣臣等”의 복수형으로 표기했다. 서유구의 책임 하에 규장각의 관련자들이 분류 및 해제 작업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鑿板考』 凡例.

『누판고』가 만들어낸 최고의 개성은 책판의 분류와 체계화에 있었다. 『누판고』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세우고 책판을 분류하였다. 국왕의 친찬(親撰) 도서, 국왕의 명령으로 정부 기관에서 편찬·간행한 도서는 각기 어찬서(御撰書), 어정서(御定書)로 이름 짓고, 나머지 도서는 책의 성격에 따라 경(經)·사(史)·자(子)·집(集)의 4부로 나누었다.

어찬서는 1794년에 간행된 강원도의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¹¹⁾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영조의 작품이다. 대훈(大訓),¹²⁾ 상훈(常訓),¹³⁾ 심감(心鑑),¹⁴⁾ 소학지남(小學指南)¹⁵⁾ 등 영조가 재위 시절에 짓고 간행한 책들이 실렸다. 영조대의 복잡한 정국 운영과 연관하여 생산된 이들 책들은 영조 개인의 정치이념, 그리고 영조 대의 정치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정조의 어찬서도 많이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누판고』에서는 거의 배제했다.

어정서는 속대전(續大典),¹⁶⁾ 대전통편(大全通編),¹⁷⁾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¹⁸⁾과 같은 법전과 예전(禮典), 훈의소학(訓義小學),¹⁹⁾ 소학언해(小學諺解),²⁰⁾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²¹⁾ 등과 같은 『소학』 교육서 혹은 교화서 등이 있다. 조

11) 『鏤板攷』 권1, 關東賓興錄 五卷. 이하 본문 및 각주에서는 『鏤板攷』에서 소개하는 도서에는 책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번잡하기 때문이다. 『鏤板攷』 및 『鏤板攷』와 상관없는 도서는 예외이다.

12) 『鏤板攷』 권1, 大訓, 一卷 “英宗辛酉 御撰. 歷叙逆臣金一鏡·陸虎龍, 謀危儲闈, 釀成誣獄之罪, 告太廟頒中外, 節掌銓臣, 勿以黨目, 互對用人. 校書館藏【缺】印紙五張.”

13) 『鏤板攷』 권1, 常訓 一卷, 續常訓 一卷 “英宗乙丑 御撰. 分敬天·法祖·敦親·愛民·祛黨·崇儉·勵精·勤學八目. 其續編, 則戊寅 御撰, 撮原書中敬天·愛民二目, 而推演其餘意, 蓋敬天·愛民·爲八目之綱領也. 奉謨堂藏, 印紙一牒四張.”

14) 『鏤板攷』 권1, 心鑑 一卷 “英宗朝御撰. 以授東宮, 凡十三則, 皆省察操存之要, 燕濩體驗之工, 【濩疑翼之誤】即聖人傳授心法之旨訣也. 奉謨堂藏, 印紙八張.”

15) 『鏤板攷』 권1, 小學指南 二卷 “英宗丙戌 御撰. 分上下二篇, 上篇, 御註朱子題辭, 下篇, 演釋內外篇, 篇題旨義. 南漢開元寺藏, 印紙十一張. 北漢太古寺藏, 印紙十一張.”

16) 『鏤板攷』 권1, 續大典 六卷.

17) 『鏤板攷』 권1, 大典通編 六卷.

18) 『鏤板攷』 권1, 國朝喪禮補編 六卷, 圖說 一卷.

19) 『鏤板攷』 권1, 訓義小學大全 六卷.

20) 『鏤板攷』 권1, 小學諺解 六卷.

21) 『鏤板攷』 권1, 三綱行實圖 三卷.

선 전기부터 정조대까지,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 운영 혹은 대민 교화 · 교육을 위해 편찬 간행한 책들이다.

경·사·자·집의 4부에는 각기 하위 유문을 두어 책판의 종류를 세분했다. 경부는 총경류(總經類), 역류(易類), 서류(書類) 등 8류, 사부는 통사류(通史類), 잡사류(雜史類), 전기류(傳記類) 등 5류, 자부는 유가류(儒家類), 병가류(兵家類) 등 11류, 집부는 초사류(楚辭類) 등 3류, 총괄하여 27류이다. 4부 27류 체계라 할 수 있다. 어찬·어정서의 경우에도 경·사·자·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격의 책이 들어 있지만 어찬서, 어정서로만 일괄하여 처리했다. 이를테면 어정서에 포함된 동국병감(東國兵鑑),²²⁾ 소학언해(小學諺解)²³⁾는 각기 자부의 병가류(兵家類), 자부의 유가류(儒家類)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의 책이나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 『누판고』에서는 이와 같이 책판을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어찬서, 어정서 이하 경·사·자·집 순으로 배치했다.²⁴⁾

〈표 1〉 『누판고』 경·사·자·집 4부와 부별 類門

유문\4부	經	史	子	集
類門	總經 易 書 詩 禮 春秋 四書 小學	通史 雜史 傳記 掌故 史評	儒家 兵家 醫家 天文籌法 術數 雜纂 說家 類書 譯語 道家 釋家	楚辭 總集 別集(상·하)
類門의 수	8류	5류	11류	3류

『누판고』의 경·사·자·집의 4부 27류 체계는 정조대에 편찬된 『규장총목(奎

22) 『鏤板攷』 권1, 御定書.

23) 『鏤板攷』 권1, 御定書.

24) 『누판고』는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御撰書·御定書, 제2권 經部, 제3권 史部, 제4권 子部 上, 제5권 下, 제6권 集部 上, 제7권 下이다.

章總目』과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²⁵⁾ 이 책은 중국 도서의 서목·해제서였기에 어찬서, 어정서 영역이 없다. 『누판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규장총목』은 4부(部) 34류(類)의 유문을 갖추었다.²⁶⁾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누판고』보다 조금 많은 수치이다.

〈표 2〉 『규장총목』의 경·사·자·집 4부와 부별 類門

유문\4부	經	史	子	集
類門	總經 易書 詩 春秋 禮樂 四書 小學	正史 編年 別史 掌故 地理 鈔史 譜系 總目	儒家 天文 曆籌 卜筮 農家 醫家 兵家 刑法 道家 釋家 雜家 說家 藝玩 類事 叢書	總集 別集(상·하)
類門의 수	9류	8류	15류	2류

『누판고』의 부별 유문을 『규장총목』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경부의 유문은 그 이름이나 순서에서 거의 비슷하다. 소학류에서는 주로 음운서(音韻書)를 다루었다. 사부는 차이가 많이 난다. 『누판고』에서 통사류, 잡사류, 전기류, 장고류(掌故類), 사평류(史評類)로 5류로 분류한 한 반면 『규장총목』에서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별사류(別史類), 장고류(掌故類), 지리류(地理類), 초사류(鈔史類), 보계류(譜系類), 총목류(總目類)의 8류 체계를 갖추었다. 유문의 수에

25) 『鏤板攷』에서는 細目으로 條를 나눌 때에는 歷代 '藝文志'와 陳振孫의 『書錄解題』, 鍾音의 『浙江遺書總錄』를 절충하였다고 했다(『鏤板攷』凡例). 조선에서 『鏤板攷』 편찬 이전 이 방식으로 만든 書目은 『奎章總目』이었다. 그러므로 『鏤板攷』 分문의 특징을 살피는 데는 『奎章總目』과의 비교가 유용하다.

26)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2 앞의 글 참조.

서도 차이가 나거니와, 분류하는 이름 자체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규장총목』에서 다루는 서종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하다면 『누판고』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것은 조선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여 보급한 사서의 종류가 많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누판고』의 사부에서 전기류가 들어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전기류는 실기(實記), 연보(年譜), 언행록(言行錄)이 주를 이룬다.²⁷⁾

자부는 『누판고』의 유가류(儒家類), 병가류(兵家類), 의가류(醫家類), 천문주법류(天文籌法類), 술수류(術數類), 잡찬류(雜纂類), 설가류(說家類), 유서류(類書類), 역어류(譯語類), 도가류(道家類), 석가류(釋家類)와 『규장총목』의 유가류, 천문류, 역주류(曆籌類), 복서류(卜筮類), 농가류(農家類), 의가류, 병가류, 형법류(刑法類), 도가류, 석가류, 잡가류, 설가류, 예완류(藝玩類), 유사류, 총서류(叢書類)로 대비된다. 사부와 마찬가지로 두 책의 차이가 크다. 이 차이는 일단 조선과 중국의 출판 사정이 다른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누판고』의 자부는 유문의 배치에서 조선에서만 찾을 수 있는 출판 상황 또한 반영하고 있다. 『누판고』에서 병가류를 유가류 다음으로 배치한 점, 역어류를 설정한 점이 그것이다.

『누판고』에서 병가류는 의가류, 천문주법류, 술수류보다 앞서 자리 잡고 있다. 『규장총목』과는 다른 점인데, 『누판고』의 찬자들이 병가류를 중시하는 의식이 강했음을 볼 수 있다. 역어류는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익히기 위한 교재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와의 외교 통상에 필요한 이들 교재를 적극 만들고 관리했던 조선의 사정을 역어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부와 관련해서는 『누판고』에서 초사류(楚辭類)를 별도로 설정한 점이 흥미롭다. 초사류에 속하는 책판으로는 실제 2종에 불과하지만,²⁸⁾ 조선의 문화 전통에서 '초사'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누판고』는 전국의 책판을 어찬서, 어정서, 경부, 사부, 자부, 집부

27) 『鑠板攷』에서 전기류는 전체 44종으로, 總錄 9종, 別錄 35종이다. 史部에 실린 책이 모두 76종이었으므로 전기류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28) 『鑠板攷』 권6, 楚辭八卷, 辨證二卷, 後語六卷; 권6, 選賦八卷.

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성이 갖는 『누판고』의 구성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어찬서와 어정서를 중시하는 의식이다. 『누판고』는 어찬서, 어정서를 경·사·자·집에 배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류하되 이를 경·사·자·집보다 먼저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누판고』에서는 ‘존존(尊尊)’의 대의를 중시하는 것이라 했다.

唐 徐堅은 『初學記』에서 태종의 御製를 역대의 書目 앞에 올려 배치했는데 대개 ‘尊尊의 대의’는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焦竑의 『國史』 『經籍志』와 朱彝尊의 『經義考』 모두 앞 세대의 規범을 준수했다. 지금은 ‘御撰’과 ‘御定’의 두 항목을 별도로 세웠다. 모두 列朝의 典學·憲章의 도서들인데 삼가 그 의례를 개략적으로 기록하여 四部의 첫머리에 두었다.²⁹⁾

‘존존(尊尊)’은 ‘친친(親親)’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연결 짓는 유가의 대원칙의 하나였다.³⁰⁾ ‘친친’이 혈연에 기초하여 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의 원칙이라면 ‘존존’은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하여 관계를 설정할 때 기능했다. ‘존존’의 대의 상 어제를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보다 앞에 두었다는 사실은 책의 구성에서 이미 국왕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 하겠다.³¹⁾

경·사·자·집으로 분류한 방식 또한 이 책의 특성이다. 조선에서 도서를 경·사·자·집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경험은 정조 5년에 편찬한 『규장총목』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분류 방식은 중국에서 오래 전에 확립되었거니와, 조선에서

29) 『鏤板攷』凡例 “一 唐徐堅初學記, 以太宗御製, 升列歷代之前, 蓋尊尊之大義宜然也, 焦竑國史經籍志, 朱彝尊經義考, 並遵前規, 今另立御撰御定二目, 凡列朝典學之篇, 憲章之書, 恭錄其義例槩略, 冠之四部之首, 而親撰曰 御撰, 命撰曰 御定.”

30) 이봉규, 1993 『규범의 근거로서 혈연적 연대와 신분의 구분에 대한 古代儒家的 인식』 『泰東古典研究』 10 참조.

31) 어찬·어정서를 책 머리에 두고 목록을 만드는 방식은 『누판고』보다 먼저 편찬된 정조대의 朝鮮本 서목에서 확인된다. 1792년(정조 16) 무렵 편찬된 『西序書目籤錄』은 조선본을 소장하던 書庫인 西序의 목록인데, 국왕이 지은 시문과 책[御製御筆類], 왕실 족보[璫牒璫譜類], 국왕의 명령으로 편찬한 책[御定類]을 먼저 신고, 이어 경·사·자·집의 도서를 실었다(이 책에 대해서는 南權熙, 1989 『西序書目籤錄 解題』 『奎章閣』 12 참조).

는 국초에 이를 따라 책을 분류하기도 했다. 다만 목록집으로 구체화된 시점은 정조대였다.³²⁾ 『누판고』 또한 이 방식에 근거하여 책판을 분류하였다. 4부 분류 방식은 경(經)이 가지는 위상을 중시하고, 이하 사·자·집은 그 보다 낮추어 파악하는 사고와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이 어찬서, 어정서, 경부, 사부, 자부, 집부로 구성된 『누판고』의 분류 체재는 책판이 가진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이 방식은 책판 그리고 그 책판에 담겨 있는 지식을 위계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성격을 지니었다. 『누판고』의 편찬자는 어정서와 어찬서를 4부 앞에 배치하여 조선의 국왕이 가진 위상을 강조했고, 경-사-자-집으로 이어지는 도서의 위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누판고』에 실린 책판의 전 종수는 616종이다. 어찬서·어정서가 각기 24종·46종이고, 경부 46종, 사부 76종, 자부 120종, 집부 304종이다(표 3). 『누판고』의 책판이 조선 전기 이래 정조대까지 판각된 책판을 포괄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종수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³³⁾ 책판의 종류 또한 단조롭다. 17세기 이래 중국에서 들어오던 신간 서적들의 책판은 거의 없다. 『규장총목』에 실려

『西序書目籤錄』의 분류

類·部別 분류	책수	책의 배치 위치	비고
御製御筆類 附廣韻類	546책	제1廚	
璿牒璿譜類 附儀軌類	121책	제2廚	
御定類	1921책	제1架 ~ 제3架	
甲庫 經部	3725책	제4架 ~ 제10架	
乙庫 史部	5789책	제12架(?) ~ 제24架	제11架 표시는 누락
丙庫 子部	2722책	제25架 ~ 제32架	
丁庫 集部	5752책	제33架 ~ 제45架	
	4361책	左右夾室	別置 圖書

32) 李載喆, 1976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朝鮮朝의 四部分類法考』 『省谷論叢』 7, 582-585면.

33) 『누판고』에 수록된 책판이 정조 당시 조선에 존재했던 책판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테면 영조 5, 6년 평양과 상주에서 송인명, 이정숙에 의해 경민편이 증보, 간행된 적이 있었다. 이정숙의 간행본은 영조 20년 이후에도 용궁, 전주 등에서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누판고』 편찬 시기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누판고』에서는 이때의 간본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청도군 한 곳에서 경민편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

있는 『양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 『일지록(日知錄)』, 『서하집(西河集)』과 같은 책들은 찾을 수 없다.³⁴⁾ 이것은 이들 책에 대해, 책판으로 간행하여 읽을 정도로 사회적 수요가 적었거나 아니면 학문적 금제(禁制)가 작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려 있는 책판의 종수로 볼 때 자부와 집부의 비중이 크다. 특히 집부가 압도적이다. 거의 49%를 점한다. 초사류(楚辭類), 총집류(總集類), 별집류(別集類)의 유문으로 세분된 집부에는 초사(楚辭), 당시품회(唐詩品彙),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등 중국의 시문이 실려 있기도 하지만,³⁵⁾ 고려·조선에서 생산된 가문 혹은 개인의 문집이 주종을 이룬다. 조선에서의 책판 생산에서 사가(私家)·개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컸음을 『누판고』는 알려 준다.

〈표 3〉 책판의 종수 및 각 지역별 소장처

종수\영역	御撰	御定	經	史	子	集	참고
종수	24	46	46	76	120	304	616
소장처	30	103	58	90	120	304	705
소장지역 (한성·도)	7	9	6	9	9	8	

각 영역의 책판은 대개 편찬·간행 연대를 따라 배열되었다. 이들 책판은 교서관(校書館), 봉모당(奉謨堂), 사역원(司譯院) 등 서울의 여러 장소를 비롯 전국에 걸쳐 소장되어 있는데, 책판 전체 소장처는 705개 처이다(표 3). 한 종류의 도서를 여러 지역에서 간행한 사례가 여러 건 있으므로, 소장처의 수가 종수보다 더 많다. 종수 대비 소장처의 비율을 보자면, 2.2배를 웃도는 어정서가 가장 높고 다음 경부, 어찬서, 사부 순이다. 자부와 집부는 두 곳 이상 책판을 소장한 곳이 한 종도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정서 간행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34) 『규장총목』에 실려 있는 명청대의 다양한 책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2 앞의 글, 109-112면 참조.

35) 『鏤板攷』 권6.

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국가 운영에서 어정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어정서를 편찬한 곳이 많았다는 사실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을 다수 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정 도서를 여러 곳에서 판각하여 보급하려고 했다. 어정서의 책판이 많은 이유였다. 어정서 가운데 2곳 이상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은 16종으로 다음과 같다.

〈표 4〉 어정서 가운데 2곳 이상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

책판\ 소장처 수	2	3	4	5	6	12	15
책판	新註無冤錄, 東醫寶鑑 (2종)	兵將圖說, 周易 諺解·書傳 諺解·詩傳 諺解·大學 諺解·論語 諺解·孟子 諺解·中庸 諺解, 國朝喪禮補編, 續兵將圖說, 欽恤典則, 史記英選, 朱書百選 (7종)	明義錄· 諺解, 續明義錄· 諺解, 大典通編 (3종)	三綱行實圖 (1종)	闡義昭鑑· 諺解 (1종)	小學諺解 (1종)	訓義小學 大全 (1종)

위 표의 어정서 16종의 출판처-소장처만 계산해보면 모두 75곳이다. 소학언해,³⁶⁾ 훈의소학대전³⁷⁾은 각기 12곳, 15곳에 이른다. 이 두 책은 이이의 『소학집주(小學集註)』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영조대 『소학』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와 같이 전국에서 간행하게 되었다.³⁸⁾ 간행지가 10곳을 넘어서는 까닭은 이 책들의 전국적 보급과 연관이 있지만, 경상도의 여러 군현에서 이 책을 간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 살핀 대로 『누판고』는 어찬서 어정서, 경·사·자·집으로 영역을 세분

36) 『鑊板攷』 권1. 12 장소는 다음과 같다. 原州牧, 海西觀察營, 湖南觀察營, 嶺南觀察營, 慶州府【刊】, 善山府【刊】, 蔚山府, 醴泉郡, 淸道郡, 禮安縣【刊】, 居昌縣, 關西觀察營.

37) 『鑊板攷』 권1. 15 장소는 다음과 같다. 原州牧, 海西觀察營, 湖南觀察營【刊】, 嶺南觀察營【刊】, 嶺南左節度營, 慶州府【刊】, 安東府【刊】, 尙州牧, 星州牧, 東萊府, 咸陽郡, 義城縣, 關北觀察營【刊】, 關西觀察營【刊】, 成川府【缺】.

38)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제3장 참조.

하고 전국에 소재하는 책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조선에서는 정조대에 본격 시도된 방식이었는데, 강한 위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누판고』에서는 위계적 서열을 엄두에 두고 서적의 편찬과 정리, 지식의 체계화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누판고』에 수록된 책판은 6개 영역에 고루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는 집부였다.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집부의 책판이 대체로 개인의 문집이므로, 『누판고』 편찬 시기에 문집으로 대표되는 사(私) 영역의 책판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누판고』에 실려 있는 책판 정보는, 동일 서종이 여러 지역에서 판각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어정서의 수치가 높았는데, 두세 곳에서 간행되는 서종도 많았지만, 12곳 혹은 15곳에 이르는 책도 있었다.

3. 『누판고』의 도서와 조선 학술

1) '중국 도서'의 종류와 성격

『누판고』의 책판 정보는 조선에서 간행, 유통된 서책의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목판본은 그 수량이 적고 종수도 다양하지 않지만, 활자로 인쇄하여 보던 책, 중국에서 간행된 중국본(中國本)이나 필사본으로 유통하는 책에 비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다대했다. 『누판고』에 실려 있는 책판 정보를 살핀다면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던 지식 정보의 개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지식과 결합되어 있는 조선 학술 세계의 지형 또한 조감할 수 있다.

『누판고』에 수록된 서책은 대체로 고려·조선 시기의 정부와 학자가 편찬, 저술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 들여와 간행한 도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에서 가져 왔다 하더라도 조선에서 간행하여 활용한다면 '조선본(朝鮮本)'의 범주에 들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 책자를 '중국 도서'로 분류했다. 그와 대비되는 책은 모두 '조선 도서'라고 했다. 중국 도서 중에서 점유율이 높은 영역

은 사부(史部)와 경부(經部)이다. 사부와 경부 각기 45%, 22%이다. 중국 도서만으로 볼 때는 사부, 집부의 비중이 높다. 사부는 62%, 집부는 15%에 이른다.

〈표 5〉 각 영역 별 책판의 종수 및 원 출처

도서\영역별 책판 수	御撰	御定	經	史	子	集	참고
중국 도서	0	1	10	9	54 ³⁹⁾	13	5,472
조선 도서	24	45	36	67	66	291	529
전 종수	24	46	46	76	120	304	616

『누판고』가 신고 있는 전체 책판에서 경·사·자·집의 중국 도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617종 가운데 모두 합하여 87종에 불과하다. 14%의 비율이다. 조선 도서는 86%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 도서는 조선의 국정 운영, 조선 학자들의 학문 활동에서 기저를 이루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면모를 이들 서적은 지니고 있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조선에서 간행된 중국 도서는 많은 경우, 주석을 새로 달거나⁴⁰⁾ 긴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여⁴¹⁾ 조선 사정에 맞추려고 했지만, 본래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점이다.

중국 도서 중에서 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자부(子部)와 경부(經部)이다. 자부와 경부 내 중국 도서의 비율은 각기 45%(54/120), 22%(10/46)에 이른다. 자부 내 여러 유문(流門)의 중국 도서 상황은 이보다 더 극적이다. 병가류(兵家類)는 15권 중 12권, 의가류(醫家類)는 7권 가운데 6권, 천문주법류(天文籌法類)는 4권 가운데 2권, 술수류(術數類)는 10권 모두가 중국 도서이다. 중국 도서에 한정하여 보자면, 자부, 집부의 비중이 높다. 자부는 62%(54/87), 집부는 15%(13/87)에 해당한다. 각 영역 별로 주요한 책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39) 釋家類 가운데 해인사에 소장된 1539종의 책판은 제외하고 계산했다.

40) 『鑪板攷』 권1, 新註無冤錄 二卷: 권1, 訓義小學大全 六卷.

41) 史記評林 一百三十一卷(『鑪板攷』 권3), 漢書評林 一百一卷(『鑪板攷』 권3)은 원본에 있던 諸家의 評語를 삭제하고 간행했고, 通鑑節要 五十卷(『鑪板攷』 권3)은 點抹을 제거했다.

어정서에서는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⁴²⁾을 거론할 수 있다. 원(元)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1435년(세종 17) 이조참의(吏曹參議) 최치운(崔致雲) 등이 주석을 달아 새롭게 편찬한 책이다. 또한 음훈(音訓)을 달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조선 시기 내내 행정 업무의 주요 지침서로 활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한글로 번역[언해]까지 하여 보급했다.⁴³⁾ 충주목(忠州牧), 관서관찰영(關西觀察營) 두 곳에서 책판을 소장했다.

경부에는 영락대전본 4서 3경[주역대전(周易大全), 서전대전(書傳大全), 시전대전(詩傳大全), 대학대전(大學大全), 논어대전(論語大全), 맹자대전(孟子大全), 중용대전(中庸大全)]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이 실렸다. 조선 사람들이 유학 학습을 위하여 읽었던 필수 서적이 무엇이었던지 잘 보여준다.

역전(易傳) 4권, 송(宋) 정자(程子) 찬(撰), 문인(門人) 양시(楊時) 교정(校正)
 역전본의(周易本義) 12권, 송 주자 찬
 서집전(書集傳) 7권, 송 채침(蔡沈) 찬
 시집전(詩集傳) 21권, 송 주자 찬
 찬도호주주례(纂圖互註周禮) 12권, 후한(後漢) 정현(鄭玄) 주(註)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 10권, 송 사마광(司馬光) 찬
 대학장구(大學章句) 1권, 논어집주(論語集註) 10권, 맹자집주(孟子集註) 7권, 중용장구(中庸章句) 1권, 송 주자 찬
 예부운략(禮部韻略) 4권, 옥편(玉篇)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 1권

경부의 중국 도서들은, 예부운략(禮部韻略)과 같은 소학서, 찬도호주주례(纂圖互註周禮)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송대와 명초의 학술적 토대, 특히 정주학(程朱學)의 기반 위에서 생산된 도서들이다. 이들 도서의 책판은 조선 학자들이 4서 3경의 범위 내에서 정이(程頤), 양시(楊時), 주희(朱熹), 채침(蔡沈) 등 송대 성

42) 『鏤板攷』 권1, 新註無冤錄 二卷.

43) 『正祖實錄』 권32, 15년 3월 15일(己丑) “刊行《無冤錄諺解》. 先是, 上以《無冤錄》一書, 所以斷殺死之獄也, 本文艱晦, 未易人人分曉, 命綾恩君 具允明, 著諺解. 至是書成, 命刑曹, 刊布中外”; 권36, 16년 11월 20일(乙卯) “命芸館刊布《增修無冤錄》. 刑曹正郎洪浩源啓言, 《增修無冤錄》一卷, 諺解二卷, 曾已編次謄書, 而未及印出, 請令校書館, 開刊廣布, 從之.”

리학자들의 사유가 깃든 저술을 찾아 읽으며, 유교적 세계관과 소양을 쌓아 나갔음을 잘 보여준다. 사마광의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는 『주자가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책 속으로 흡수되었지만, 이와 같이 독자적인 서책으로도 간행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사부에 속하는 책관은 사기평림(史記評林), 한서평림(漢書評林), 삼국지(三國誌), 통감절요(通鑑節要), 십구사략통고(十九史略通攷) 등의 통사류, 주문공년보(朱文公年譜)와 같은 전기류, 장고류(掌故類)의 대명률(大明律), 사평류(史評類)의 당감(唐鑑)이 주목된다. 가장 늦은 시기에 저술된 책으로는 1507년(正德 2) 이동양(李東陽) 등이 명 효종(孝宗)의 명령을 받아 간행한 역대통감찬요(歷代通鑑纂)가 있다.

사서 가운데 통감절요는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핵심 되는 내용을 간추려 만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⁴⁾ 소미통감절요(少微通鑑節要)로 알려진 이 책은 중국의 통사를 익히는 기본 도서로서 조선에서 가장 널리 읽힌 사서 중의 하나였다. 명성에 걸맞게 책판 소장처는 남한산성 개원사(開元寺)를 비롯, 북한산성 태고사(太古寺), 제주목(濟州牧), 안동부(安東府), 관북관찰영(關北觀察營), 관서관찰영(關西觀察營) 등 8곳을 헤아린다.⁴⁵⁾

주문공년보는 경성부(鏡城府)에서 간행했다. 주희의 문인인 송대 학자 이방자(李方子)가 편찬했는데, 명(明)의 섭공회(葉公回)가 증교(訂校)했다.⁴⁶⁾ 이 책에는 주자의 행장, 주자가 편찬한 동몽수지(童蒙須知)를 덧붙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자의 생애, 주자의 기본 가르침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도록 했다.⁴⁷⁾

대명률은 조선 건국 이래 형율의 기본 도서로서 활용되어 왔다. 태조 대에 『대

44) 『鑿板攷』 권3, 通鑑節要 “其書, 取6司馬氏資治通鑑, 而節要之. 江鎔序云, 具存. 點抹, 以舉其綱, 而我東刻本, 率皆刊去之.”

45) 『鑿板攷』 권3, 通鑑節要 “南漢開元寺藏【刊缺】印紙三十三牒五張, 北漢太古寺藏【刊缺】印紙三十三牒五張, 濟州牧藏【刊缺】印紙三十牒二張, 安東府藏【刊】印紙三十三牒, 關北觀察營藏【刊】印紙三十五牒, 關西觀察營藏【缺】印紙三十五牒二張.”

46) 『鑿板攷』 권3, 朱文公年譜.

47)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太師徽國文公年譜』(奎中 2086; 奎中 1809)와 같은 종류의 책으로 보인다. 『太師徽國文公年譜』後序의 작성 연대는 1452년(景泰 3)이며, 鏡城府에서 간행했다. ‘行狀’, ‘童蒙須知’가 책의 말미에 실려 있다.

명률직해』를 편찬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용해왔으며, 『경국대전』 형전의 ‘용률조(用律條)’에 형율은 이 책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누판고』에 실린 이 책 또한 『대명률직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판고』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大明律 30권. 明 洪武 癸丑(1373), 刑部尙書 劉惟謙 등 奉勅撰. 丙辰年에 丞相 胡惟庸에게 명령하여 釐正하게 하고 乙亥年에 또 詞臣 등에게 명령하여 이어서 편찬하게 하고 名例律로 고쳐 첫머리에 내세웠으며, 이어 吏律·戶律·禮律·兵律·律·工律을 실었다. 모두 1,066조이다. 關西觀察營 소장⁴⁸⁾

『누판고』 소재 자부 도서의 구성은 특별하다. 도서의 위상으로는 유가류가 선두이지만, 중국 도서의 비율은 병가류, 의가류, 술수류가 매우 높다. 석가류는 팔만대장경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적은 종의 경전만 제시했다. 조선에서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유가, 이단의 사고로 배척했던 불교, 그리고 병가류에 대한 특별한 태도 등을 볼 수 있다.

유가류의 책은 충경(忠經), 효경, 소학대문(小學大文), 소학집설(小學集說), 근사록(近思錄), 동몽수지(童蒙須知), 주자어류(朱子語類), 천지만물조화론(天地萬物造化論), 이정전서(二程全書),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설선(薛瑄)의 독서록요어(讀書錄要語), 명심보감(明心寶鑑), 정민정(程敏政)의 심경부주(心經附註) 등 모두 12종이다. 유·불·도 3교 회통적인 명심보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점이 의아하지만, 대체로 송대의 학문 특히 주자학을 익히기 위한 기본 도서들이다. 소학대문, 소학집설, 근사록, 동몽수지, 설선의 독서록요어, 정민정의 심경부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효경은 실제로는 주자의 『효경간오(孝經刊誤)』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된 원 동정(董鼎)의 『효경대의』⁴⁹⁾를 말한다.

48) 규장각에 소장된 大明律(奎貴 1709; 奎 5938)은 30卷 4冊 분량으로, 肅宗 12年(1686) 高士契 등이 平安監營에서 간행했다. 1395년 2월 初에 金祗가 쓴 識가 있고, 『大明律』을 漢文·吏讀로 直解했다. 『누판고』의 대명률은 ‘直解’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규장각 소장본과 같은 계통의 책일 가능성이 높다.

49) 『鏤板攷』 권4, 忠經 一卷, 孝經 一卷 “忠經, 舊傳後漢南郡太守馬融撰, 然後漢書融傳, 歷叙著述, 而獨不及忠經, 疑後人所托. 孝經大義, 宋董鼎, 因朱子刊誤, 而逐節註解者, 本朝鏡城

이들 유가류 책 가운데 특히 많이 간행된 책은 근사록(近思錄), 심경부주(心經附註)로 나타난다. 근사록⁵⁰⁾은 경주 옥산서원, 관북관촬영, 성천부(成川府) 등 3곳, 심경부주⁵¹⁾는 관북관촬영, 영변부 등 2곳에서 책판을 소장했다. 두 책 모두 16세기 전반부터 성리학 학습의 기본 도서로 주목되어 널리 간행되어 읽히는데, 『누판고』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유가류의 책들에 대해 『누판고』의 편찬자는 필요하다면 책이 편찬되고 간행되는 과정을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려고 했다. 이정전서(二程全書),⁵²⁾ 근사록,⁵³⁾ 주자어류(朱子語類)⁵⁴⁾ 등은 긴 시간에 걸쳐 편찬되고 또 여러 차례 간행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누판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누판고』의 편찬자는 일부 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다. 충경(忠經)에 대해서는 “후인의 가탁(假托)”⁵⁵⁾이라고 의심했고, 소학집설은 주석자인 정유(程愈)가 황상(黃裳)·하사신(何士信)·유실(劉實)·진선(陳選) 등의 소학 주석자에 비하면 명성이 높지 않았지만, 이 책이 조선에 가장 먼저 전래 되었기에 지금까지 존신된다고 했다.⁵⁶⁾ 소학집설은 16~7세기에 큰 영향을

府判官李萬維合刻之，名曰忠孝經。”

50) 『鑿板攷』 권4, 近思錄 十四卷.

51) 『鑿板攷』 권4, 心經附註 四卷.

52) 『鑿板攷』 권4, 二程全書 六十八卷 “明徐必達編，始朱子取程子門人所記語錄，附行狀之類，編爲遺書，後得他書所載程子語一百五十五條，以補遺書所未備，爲其眞偽相雜，故謂之外書，其與二程文集經說合刻，則有長沙·五羊·臨川·中州諸本，互有詳略，必達，合諸本參校，復以楊時所編二程粹言益之，舊本，錄伊川易傳全文，東刻本，但著其目，不錄其文。”

53) 『鑿板攷』 권4, 近思錄 十四卷 “宋朱子·呂祖謙同撰，書成於淳熙二年，取周子·程子·張子之言，擇其切要者，得六百二十二條，據黃幹答李方子書，朱·呂原本，未曾分門，朱子遺書中所載者，猶其舊本，今所列道體等目，幹謂出自金華朋友，未詳名氏，淳祐中葉，采爲之集解，表進于朝。”

54) 『鑿板攷』 권4, 朱子語類 一百四十卷 “宋沙縣主簿黎靖德編，朱子沒後，輯門人記錄之語者，有池錄·饒錄·饒後錄·建錄，其類編爲書者，則有蜀本·徽本，翻刻不一，訛舛日增，靖德哀集諸刻，刪除重複，釐爲二十六目，頗清整易觀，然前後異同之處，則未能考正也，英宗辛卯，奉教重刻。”

55) 『鑿板攷』 권4, 忠經 一卷, 孝經 一卷 “忠經，舊傳後漢南郡太守馬融撰，然後漢書融傳，歷叙著述，而獨不及忠經，疑後人所托。”

56) 『鑿板攷』 권4, 小學集說 六卷 “明禮部員外郎程愈撰，成化中，本朝金駟孫，使于燕，從愈問學，得是書歸鐫，明儒之註解小學者，有黃裳·何士信·劉實·陳選諸家，程則獨無著稱，特

미쳤던 책으로, 이이의 『소학집주』가 간행되고 또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소학 훈의가 널리 보급되는 중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제자의 논평은 이러한 사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성리대전서에 대해서는 보다 격렬하게 비판하여, “그 가운데 원서(原書)에서 따서 기록하여 부질(部帙)을 이룬 것이 9종이고, 여러 말들을 주워 모아 분문(分門)하여 편찬한 것이 13류이다. 거칠고 난잡하게 불품없이 베껴 구겨지게 쌓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단류(異端類)에 석씨(釋氏)가 빠지고, 주자문인(朱子門人)으로 임택지(林擇之)·범백송(范伯崇) 무리들을 신지 않았으니 더욱 소루하고 미흡하다.”⁵⁷⁾고 했다.

병가류에 실린 도서는 육도(六韜), 손무자(孫武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삼략(三略),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장감박의(將鑑博議) 등 모두 15종이다. 유가류 다음으로 병가류를 배치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누판고』 편찬자들은 병가류의 도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불어 이 책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문치(文治)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던 조선의 일반적 분위기는 병가를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양상은 특별하다. 『누판고』에서는 위료자에 대해 “그 말이 바른 데에 가까운 것이 많아 전국(戰國) 시대의 권모(權謀)와는 자못 다르다. 그러므로 장횡거(張橫渠)도 일찍이 이 책에 주석을 붙였다.”⁵⁸⁾고 했고, 이위공문대에 대해서는 “그 조획(措畫)·공수(攻守)·변역(變易)·주객(主客)에 대한 병가(兵家)의 미의(微意)는 때로 얻은 바가 있다. 그러므로 정윈(鄭瑗)⁵⁹⁾이 『정관쇄언(井觀瑣言)』에서 그 책이 비록 위작이지만 또한 학식과 모략이 있는 자의 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정조대의 병가류를 중시하던 정책 방향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以其最先東來，遂至今崇信焉。”

57) 『鏤板攷』 권4, 性理大全書七 十卷 “明永樂乙未, 翰林院學士胡廣等奉勅撰, 所採宋儒之說, 凡一百二十家, 其中擷錄原書, 自爲部帙者九種, 摺拾羣言, 分門編纂者十三類, 勦襲蕪雜, 裒積成書, 如異端類之闕釋氏, 朱子門人類之不載, 林擇之·范伯崇輩, 尤見其疎猶云.”

58) 『鏤板攷』 권4, 尉繚子 五卷 “周尉繚撰, 明劉寅直解. 漢志兵家, 有尉繚三十一篇, 今本二十四篇, 未詳卽漢志所載, 然其言, 多近於正, 與戰國權謀頗殊, 故橫渠張子亦嘗註之.”

59) 鄭瑗(?~?)은 명 나라 때의 관리이자 학자이다.

60) 『鏤板考』의 병가류에 수록된 책 가운데 『新傳煮硝方』은 숙종 무인년(1698)에 한글로 풀

의가류, 술수류의 책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 일반적 독서를 기대하기에 이 책들의 내용은 어렵고 제한적이다. 그런데 두 영역의 도서에 대한 간행 사정은 양상을 달리한다. 의가류는 주관 관서인 해민서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지방 관아에서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중앙에서의 수요를 이들 지방 관아에서 감당하여 책판을 갖추고 있었다 해도 지방에서의 대중적 수요 또한 적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술수류의 책은 중앙의 관상감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술수류 · 음양오행의 천기대요(天機大要)의 책판만 상주목에서 소장했다(표 6).

〈표 6〉 醫家類, 術數類와 책판 소장처

類門	책	책판 소장처	
醫家類	補註黃帝素問	慶州府	
	纂圖脈訣	惠民署	
	銅人鍼灸經	惠民署	
	醫學正傳	湖南觀察營 嶺南觀察營	
	醫書纂要	慶州府	
	增補萬病回春[明, 龔廷賢]	嶺南觀察營	
天文籌法類	步天歌	觀象監	
	觀象玩占	觀象監	
術數類	堪輿	人子須知	觀象監
		琢玉斧	觀象監
		羅經頂門針	觀象監
	占筮	邵康節心易梅花數	觀象監
	命書	袁天綱五星三命指南	觀象監
		應天歌	觀象監
		子平三命通變淵源 範圍數	觀象監
		範圍數	觀象監
	陰陽五行	天機大要	尙州牧

어 중외에 간포하고 정조 병진년(1796)에 重刻했으며, 『兵學指南』은 정미년(1787)에 宣傳官 李儒敬이 명을 받들어 여러 판본을 합해 釐校했다.

집부의 도서는 초사(楚辭)·변증(辨證)·후어(後語),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 당시품회(唐詩品彙), 모곤(茅坤)⁶¹⁾의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도잠(陶潛)의 도정절집(陶靖節集), 두보(杜甫)가 편찬하고 원(元)의 우집(虞集)⁶²⁾이 주석을 단 우주두률(虞註杜律), 백거이(白居易)의 백씨문집(白氏文集), 소옹(邵雍)의 격양집(擊壤集), 장식(張栻)의 남헌집(南軒集), 주희의 주자문집(朱子文集)·속집·별집·유집(遺集), 황간(黃幹)의 면재집(勉齋集), 이동양(李東陽)의 서애의고악부(西涯擬古樂府) 등이 있다. 조선학자들이 시문을 익히고 송·명대 학문을 학습하는데 활용했던 자료들이다. 17세기 이래의 책들은 보이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편찬 시기가 가장 늦은 책은 모곤의 당송팔대가문초였다.

자부 도서에서 가장 비중 있는 책으로는 주자문집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 책을 영조대에 중간(重刊)했는데, 『누판고』에서는 소장처를 호남관찰영 한 곳으로 적시했다. 주자문집에 대한 해제는 다음과 같다. 간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비(非) 주자의 위작(僞作)에 대해 경계했다.

原集은 아들에게 전하여 편집하였고, 別集은 余師魯가 편집하였는데, 다만 續集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黃鏞이 咸淳 원년(1265)에 서문을 지었으니 理宗 때 편집한 것이다. 먼 후손 朱玉이 거듭 순서를 정하고 다듬어서 이름을 ‘大全集’이라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刻板은 대체로 모두 이 본이다. 英宗 辛卯年(1771) 重刊하면서 잃어버린 시문 약간 편을 얻어서 遺集 2권을 만들었다. 그러나 원집 가운데 ‘三先生論事錄序’와 유집 가운데 ‘性理吟’·‘陰符經序’는 모두 주자의 글이 아니니, 編錄者의 오류이다. 따로 부록 12권이 있으니, 道統의 원류와 傳狀類를 차례대로 서술하고, 書院題記·撰著書目·門人題名을 기술하였으며, 黨禁錄과 三姦誣語에 이르기까지 모두 18조목이다. 그 연보는 李方子(주자의 제자)와 朱玉의 두 본을 나란히 수록하였다.⁶³⁾

『누판고』에 실려 있는 중국 도서들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도서가 조선 학술과 지식 세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유학을 비롯하여 병학, 의학, 술수학, 천문학 등의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61) 모곤(茅坤, 1512~1601) : 명대의 산문가이자 장서가.

62) 우집(虞集, 1272~1348) : 원의 학자이자 시인.

63) 『鏤板攷』 권6, 朱子文集 一百卷, 續集 十一卷, 別集 十卷, 遺集 二卷, 附錄 十二卷.

의 관련 도서들을 들여와 간행하고 활용했다. 중국의 유학서는 4서 3경, 근사록, 심경부주 등 정주학의 기본 서적이 대중을 이루었다. 육왕학 계통, 청대 고증학자들의 도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주학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조선 학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이다. 전문 영역, 특히 의학, 술수학, 천문학에서의 도서는 중국 도서의 비중이 높았다. 책판 또한 술수학, 천문학 자료들은 지방의 관아보다는 중앙의 관상감에서 소장했다. 특별히 관리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집부 도서는 송·명대 편찬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영역 또한 육왕학(陸王學) 계열, 고증학(考證學) 계열의 책은 찾기 힘들다. 경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학술적 편향을 볼 수 있다.

2) '조선 도서'의 지식 세계와 학술계

앞 절에서 본대로 『누판고』에 실려 있는 책판의 85%는 고려와 조선의 국가, 그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편찬했다. 이들 책판은 여러 각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생산 주체의 성격에 따라 살펴도 많은 점이 드러난다. 이 경우, 국가가 주체가 되는 도서, 개인·가문·학단이 주체가 되는 도서로 대별할 수 있다.

국가가 주체가 되는 도서로는 어찬서·어정서를 들 수 있다.⁶⁴⁾ 앞 절에서 살펴보았지만, 경·사·자·집의 중국본 도서들도 대체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간행되었다. 개인의 저술이라 할지라도 간혹 중앙 정부나 지방 관아에서 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유형의 도서들은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보급할 필요성이 절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김정국의 『경민편(警民編)』이 그 사례다. 16세기 전반에 황해도에서 처음 간행된 이 책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고 증보하며 활용했다. 18세기만 해도 평안도의 송인명(宋寅明) 간본,⁶⁵⁾ 상주목의 이정숙(李廷燾) 간본⁶⁶⁾이 유통되었다. 『누

64) 이 책들의 종류, 성격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65) 이 책은 1729년(영조 5)부터 1730년 사이에 평안도 감사 宋寅明이 평양에서 간행했다. 기존 李厚源의 간본에 송인명이 직접 지은 '八戒'를 덧붙였다. 이 책의 증보는 1728년의 李麟佐의 반란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66) 1730년(영조 6) 9월, 상주 목사 李廷燾이 상주에서 간행했다. 송인명 간본에 상주 지역민

판고』에는 경민편의 책판 소장처가 청도군 한 곳으로 나와 있지만,⁶⁷⁾ 개인의 저술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개인·가문·학단이 주체가 되어 간행하는 도서는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원편찬자 혹은 저자가 1인이기도 하고 다수이기도 한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편·저자의 사후, 후손이나 제자, 지역 학술계가 중심이 되어 간행했다.⁶⁸⁾ 도서 간행 과정에서 제자나 지역 학술계가 참여하게 되면 도서 간행이 가지는 사회적 학술적 의미는 훨씬 증대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작업은 많은 경우 서원(書院)과 연관하여 이루어졌다. 개인·가문·학단이 주체가 되는 도서들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큰 의미를 지녔지만, 학계나 지방 사회 나아가 조선 전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상례비요는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하고 김장생(金長生)이 수정하여 유통된 개인 저술인데, 김장생의 학문적 근거지인 연산 둔암서원 뿐만 아니라 제주목, 영남 관찰영 등 지방 관아에서도 간행하였다.⁶⁹⁾ 이 책이 조선에서 '상례(喪禮)의 표준'으로 활용되었기에 나타나는 일이었다.⁷⁰⁾

『누판고』의 책판에 들어 있는 조선의 지식 세계, 학술장의 주된 특징은 개인 저술이 뚜렷이 보여준다. 개인 저술은 편·저자 본인을 비롯, 특정 지역의 유력 가문(家門), 학파(學派)의 힘들이 상호 얽히며 간행이 이루어졌고, 출간 후에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현상은 학파·당파가 본격화되는 17세기 이래 더 강력해졌다. 책판 제작 — 책의 출판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학술적 지위의 한 징표였다. 조선 전기 이래 책판의 간행, 학술의 움직임

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덧붙여 간행했다. 송인명 증보본과 의도는 동일하다. 이정숙 간본은 영조 21년, 영조 24년에 남원, 전주 등지에서 重刊되었다.

67) 『鏤板攷』 권4, 警民編 一卷.

68) 明齋言行錄 5권은 尹拯의 門人이 그의 스승의 언행을 기록한 것을 윤증의 旁孫 윤광소가 여러 사람의 기록을 모은 뒤 합편했다. 尼城 魯岡書院 소장, 인지 4장 5첩(『鏤板攷』 권3).

69) 喪禮備要의 책판 소장지는 다음과 같다. “北漢太古寺藏【刊】印紙三牒. 連山遜巖書院藏, 印紙二牒十二張. 全州石溪書院藏 印紙三牒五張. 濟州牧藏【刊缺】印紙二牒十二張. 嶺南觀察營藏, 印紙三牒十張. 關北觀察營藏【刊】印紙五牒十二張. 關西觀察營藏【刊缺】印紙三牒四張. 寧邊府藏【刊】印紙三牒三張.”(『鏤板攷』 권2, 喪禮備要 二卷)

70) 『鏤板攷』 권2, 喪禮備要 二卷 “本朝金長生, 因申義慶所撰, 而修潤之. 蓋以禮易失於急遽凶變之際, 苟非素講, 難以應節. 本原家禮, 參以諸家, 間附時俗之制, 使可按而行之. 至今東人, 言喪禮者, 視爲券契.”

에 국가의 영향력이 컸지만, 17세기 이후로는 개인의 저술이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누판고』는 이러한 양상을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

아래 표는 『누판고』에 수록된 책판을 고려·조선의 개인 저술을 중심에 두고 분류해 본 내용이다. 어정서와 어찬서는 관련 내용이 없기에 제외하고, 경·사·자·집 4부만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표 7〉 고려·조선 학자 개인 저술의 책판 상황

저술 수\영역별 책판 수	經	史	子	集	합
전체(A)	46	76	120	304	546
고려·조선 학자의 개인 저술(B)	28	64	39	291	422
A-B	18	12	81	13	124

고려·조선 학자 개인 저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한다. 18세기 후반, 『누판고』의 수치가 이 시기 전체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저술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부 가운데서는 문집 저자의 비율(96%, 291/304)이 높고, 다음 사부(84%, 64/76), 경부(60, 28/46), 자부(33%, 39/120) 순이다. 사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기류가 많이 출간된 사정과 연관이 있다.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 백운재실기(白雲齋實記), 충장공유사(忠壯公遺事) 등 연보, 언행록, 실기류가 34종을 차지한다. 연보나 실기류의 경우에는 이름난 학자에 대한 저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자부의 비중이 낮은 점은 이 영역에서 ‘중국 도서’가 많이 활용된 사실과 대응한다. 하지만 39종의 도서가 적다고는 볼 수 없다.

고려 조선의 개인 저술 책판의 소장처는 중앙과 지방의 관아, 서원·사우, 향교, 사찰, 사가(私家) 등 다양했다. 개인 저술이라 하더라도 간행의 방식, 간행에 참여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그 장소가 달라지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아래 표는 개인 저술·문집 책판의 소장처별 상황이다.

〈표 8〉 고려·조선 학자의 저술·문집 책판의 소장처별 상황

소장처\4부	經	史	子	集	합
중앙 관서			2 ⁷¹⁾		271
지방 관아	22	24	29	77	152
서원·사우	16	32	19	90	157
향교	1		4	3	8
사찰	4	9	2	84	99
家藏		1		19	20
합	43	66	325	273	707

위 표에 보이는 소장처는 원 판각처가 전적으로 이곳이었음을 말하지는 않는다. 『누판고』 상에 소장처가 사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방 관아에 있다가 옮겨 보관하는 등 소장처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⁷²⁾ 이런 점을 감안 하더라도, 위 표의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서원·사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 지방 관아의 비율이 높다. 사찰은 99곳이고, 가장(家藏)하고 있는 책판도 20종이나 된다.⁷³⁾

이들 소장처에 소장된 책판, 도서가 조선의 학술에 차지하는 의미는 다대하다.

71) 중앙 관서는 교서관이다. 童蒙先習, 書社輪誦(李緯)의 책판이 이곳에 있었다.

72) 정조 3년의 『承政院日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영남 감영에 있던 靑泉集 板本을 陝川 海印寺로 이치고, 대구부에 있던 元朝五箴·愚齊集·貞武公集·近思錄 등 四種의 책판을 慶州府로 이송했음을 알 수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3년 12월 12일 갑자[임술] “徐有防, 以奎章閣言啓曰……成冊中靑泉集板本, 年前自營下, 移置於陝川郡海印寺, 故入錄於該郡書冊秩. 大丘府所在六種書冊落漏委折, 查問於同府, 則同判官具膺所報以爲, 杞溪俞氏族譜, 江陵金氏族譜, 與他書冊有異, 故不敢一例入錄, 至於元朝五箴·愚齊集·貞武公集·近思錄四種, 年前移送於慶州府, 故不得入錄”).

73) 家藏 책판은 다음과 같다. 史部: 金將軍遺事[龍岡 金氏家] 集部: 慎天翊·慎海翊 素隱湖山合集[靈巖 慎氏家], 李獻慶 良翁集[慕谷 鄭氏家], 申弘望 孤松集[義城 申氏家], 河潛 台溪集[晉州 河氏家], 尹善道 孤山遺集[海南 尹氏家], 權克中 靑霞集[古阜 權氏家], 洪鎬 無住逸稿[咸昌 洪氏家], 李民寔 紫巖集[義城 李氏家], 姜沆 睡隱集·看羊錄·別集·附錄[靈巖 姜氏家], 鄭文孚 農圃集[晉州 鄭氏家], 金玃 柏巖集[榮川 金氏家], 白光勳 玉峰集[靈巖 白氏家], 柳雲龍 謙菴逸稿[安東 柳氏家], 洪汝河 木齋文集[咸昌 洪氏家], 洪大龜 東菴遺稿[咸昌 洪氏家], 崔天翼 農叟遺稿[興海 崔氏家], 尹祥 別洞集[醴泉 尹氏家], 金光粹 松隱集[義城藏], 申元祿 悔堂集[義城藏].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여 살피고자 하는 사례는 서원·사우의 책판 소장이다. 서원의 운영은 그 서원·사우에서 향사(享祀)하는 인물과 연관되는 후손, 제자 혹은 지방의 유력 세력과 깊은 연관을 가지므로, 이곳의 책판 제작 또한 이들 관련 인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졌다. 책판의 주인공이 차지하는 학술 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원·사우가 발휘하는 힘은 컸을 것이다. 『누판고』에 등장하는 서원·사우, 그리고 이와 연관된 도서의 실체는 16세기 후반 이후 형성된 조선 학술계의 모습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⁷⁴⁾ 아래 표는 개인 저술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서원·사우 상황이다.

〈표 9〉 각 도별 서원·사우에서의 4부 도서 책판 소장

도\서원·사우 및 4부 책판 수	서원·사우의 수	經	史	子	集	합
경기도	2				2	2
경상도	55	11	20	14	60	105
전라도	13	0	5	1	9	15
충청도	8	5	3	1	14	23
황해도	4	0	2	3	3	8
강원도	0	0	0	0	0	0
평안도	1				2	2
함경도	2		2			2

전국에 존재하는 서원·사우의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원에서의 책판 소장-도서 간행이 발달한 도가 있는 반면에 한 곳도 없거나 한두 곳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지역 유교 문화의 발전 수준,⁷⁵⁾ 서원·사우를

74) 물론 서원·사우에서 향사되지 않더라도 학술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인물도 많다.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이 사례는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전국의 서원·사우 현황은 논문 말미의 〈附表〉 참조. 서원·사우에는 書堂, 齋舍, 影堂도 포함했다.

75) 영조 5년 평안도 감사를 지냈던 송인명이 '西路와 三南의 문화가 많이 달라, 영남과 호남의 수령·감사를 지낼 때에는 '抑文扶質'하려고 했지만 서북지역에는 風教를 숭상하는데 힘썼다고 했다'는 발언은 3남 지방과 북쪽 변방과의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 준다(『承政院日記』, 영조 8년 1월 21일 기묘 "寅明曰, 西路異於三南, 三南則文具太過, 故, 臣曾爲嶺邑倅·湖西伯時, 常抑文扶質, 而西路則異於是矣. 故, 臣前日按藩時, 專以宣布德

중심으로 하는 인적 결속력의 정도, 영향력 있는 학자의 출현 여부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경상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55곳에 달하고, 이어 전라도, 충청도 순이다.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는 서원·사우에서의 책판 소장 사항만으로 한정하여 살핀다면, 유교 문화의 불모지, 변방이었다.⁷⁶⁾

각 지역의 서원·사우는 책의 간행과 보급, 교육의 중심지였다. 또한 그 서원의 규모, 향사하는 인물의 학문적 수준과 성격에 맞추어 이 교육·제향의 공간은 특정한 학풍을 형성하고 학문·정치 세력을 이끄는 구심이 될 수 있었다. 규모에 따라 한 도서관 간행하기도 하고, 경·사·자·집의 4부 전체를 간행하기도 했던 서원 사이의 편차(偏差)는 이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지역 별로 주요한 서원과 책판 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경상도의 서원·사우는 지역,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학자와 연관하여 다양하게 분포했다. 낙동강 동쪽의 경상좌도에는 이황[陶山書院], 장현광[東洛書院], 이언적[玉山書院], 류성룡[屏山書院], 노수신[道南書院]이 있었고, 경상우도에는 조식[德川書院], 정구[檜淵書院], 김종직[禮林書院]과 같은 학자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경상좌도의 서원과 우도의 서원으로 나누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도산서원에서는 이황의 저술과 언행록을 비롯, 이황의 친족과 사우들의 글을 간행했다. 모두 14종이나 된다. 이황 관련 자료로는 경서석의(經書釋義), 계몽전의(啓蒙傳疑),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 이학통록(理學通錄)·외집(外集),⁷⁷⁾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퇴계문집(退溪文集)·속집·연보,⁷⁸⁾ 퇴계자성록(退溪自省錄) 등이 있고, 친족·사우의 도서로는 이우(李隅)의

意, 崇獎風教爲務矣. 人皆以西北武力, 爲可恃, 而武力雖強, 苟不知親上事長之義, 則其所謂武力者, 非我之有, 而反爲害焉. 雖以我東前史觀之, 南方雖有亂而易平, 西北有亂則難平, 三南之人, 懦而無勇, 西北之人, 武而多力故也”).

76) 이와 연관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서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영향력 있는 큰 학자들이라 할 지라도 『鏤板攷』 작성 시기에는 이 지역의 서원·사우와 상관이 없었다. 서울·경기의 상황은 강원도 등과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77) 『鏤板攷』 권3, 理學通錄十一卷, 外集一卷.

78) 『鏤板攷』 권6, 退溪文集 五十一卷, 續集 八卷, 年譜 三卷. 退溪文集에 대한 『鏤板攷』의 해제는 지나치게 간단하여(本朝李滉撰, 原集及年譜, 門人柳成龍編, 滉六世孫守淵, 蒐得詩文逸篇爲續集.) 조선의 주요 학자들의 문집 설명과는 대비된다.

송재집(松齋集),⁷⁹⁾ 이해(李滄)의 온계일고(溫溪逸稿),⁸⁰⁾ 김연(金緣)의 운암일고(雲巖逸稿),⁸¹⁾ 홍인우(洪仁祐)의 치재유고(耻齋遺稿), 조목(趙穆)의 월천문집(月川文集), 김해(金垓)의 근시재문집(近始齋文集),⁸²⁾ 김영(金垓)의 계암문집(溪巖文集)⁸³⁾ 등이 있다.

인동(仁同)의 동락서원(東洛書院)은 장현광의 저술을 전적으로 간행했다. 역학도설(易學圖說),⁸⁴⁾ 성리설(性理說),⁸⁵⁾ 여헌문집(旅軒文集)⁸⁶⁾ 등이 있다. 인동은 중심으로 독자적인 학풍과 학문 세계를 세우며 조선 학계에 영향을 미쳤던 장현광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이언적을 배향한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은 이언적 주요 도서들의 책판이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주자가례』와 시속을 절충하여 상·장례를 정리한 봉선잡의(奉先雜儀),⁸⁷⁾ 주희와는 다르게 『대학』을 이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속혹문(續或問),⁸⁸⁾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참조, 여러 학설을 두루 모아 『중용』 구경(九經)의 뜻을 추연(推衍)하려고 했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구인록(求仁錄),⁸⁹⁾ 회재문집(晦齋文集)·연보·부록⁹⁰⁾ 등

79) 『鑿板攷』 권6, 松齋集 二卷 “堦, 當中廟靖難時, 以承旨聞變而逃, 大議既定, 始從大臣, 稟命東朝, 策功封勳, 言官劾削之. 其出本朝戶曹參判李堦撰. 處不足觀, 而其集爲從子滄所編, 遂傳至今, 所謂因人而貴者也. 附年譜誌銘.”

80) 『鑿板攷』 권6, 溫溪逸稿 五卷 “本朝司憲府大司憲貞愍公李滄撰. 滄之兄也.”

81) 『鑿板攷』 권6, 雲巖逸稿 二卷 “本朝江原道觀察使金緣撰. 緣與李彥迪同學, 斥金安老奸, 不容於朝, 以名節聞.”

82) 『鑿板攷』 권6, 始齋文集 四卷 “朝藝文館待教金垓撰. 緣之孫也. 從趙穆遊, 早聞李滄之學.”

83) 『鑿板攷』 권6, 溪巖文集 六卷 “本朝司諫院司諫金垓撰. 緣之從孫也. 私淑李滄之學.”

84) 『鑿板攷』 권2, 易學圖說 九卷.

85) 『鑿板攷』 권4, 性理說 八卷.

86) 『鑿板攷』 권6, 旅軒文集 十一卷.

87) 『鑿板攷』 권2, 奉先雜儀 二卷 “本朝議政府右贊成文元公李彥迪撰. 本之文公家禮, 參以司馬氏·程氏祭禮及時俗之宜. 又採經傳所見報本追遠之義附之.”

88) 『鑿板攷』 권2, 大學章句補遺 一卷, 續或問 一卷 “本朝李彥迪撰. 其書以物有本末·知止而后有定二節, 爲格致之傳. 是時, 董·王·黃·蔡考正之本, 未傳我國, 而彥迪之說, 先與之合. 其移聽訟一節于經文之下, 則又據程子之本也. 當寧甲寅 御製序, 弁其卷.”

89) 『鑿板攷』 권2, 求仁錄 四卷.

90) 『鑿板攷』 권6, 晦齋文集 十三卷, 年譜 一卷, 附錄 一卷.

이다. 이언적의 주요 도서 대부분이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⁹¹⁾ 16세기 전반, 조선의 새로운 학풍을 세우는데 기여 했던 학자의 면모를 이들 자료는 잘 간직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정구(鄭述)가 편찬한 태극문변(太極問辨),⁹²⁾ 근사록(近思錄)⁹³⁾ 책판도 소장하고 있었다.

산청의 덕천서원은 조식 학문의 중심지였다. 조식의 저술이 많지 않기에 남명집(南冥集)·별집(別集)의 책판 만이 소장되어 있다. 『누판고』 편찬자는 조식이 이황과 더불어 경상좌·우도의 양 기둥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조식은 이황과 함께 영남의 좌도와 우도에서 道學을 창도하여 밝혔으니, 명성이 또한 서로 나란하였다. 그러나 조식의 학문은 바탕에 차이가 있으니, 그 문장이 또한 기이하고 뛰어난 것을 좋아하여, 이황이 布帛과 菽粟처럼 순전히 일상에 절실한 것과는 같지 않다.⁹⁴⁾

이 지역에 미친 조식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진주·함안 등지에 그의 많은 제자들이 거주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훗날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의 책을 판각하고 보관하였다. 『누찬고』 편찬자는 책마다 조식과의 관계를 밝히고 또 평가했다. 진주 임천서원(臨川書院)에 소장된 성여신(成汝信)의 부사집(浮查集),⁹⁵⁾ 산청(山淸) 서계서원(西溪書院)에 소장된 오건(吳健)의 덕계집(德溪集),⁹⁶⁾ 진주 대각서원(大覺書院)에 소장된 참봉 하항(河沆)의 각재집(覺齋集),⁹⁷⁾ 함안 덕암서

91) 關西問答錄(『鏤板攷』 권4)은 李彥迪의 아들 李全仁이 이언적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데, 慶州府에서 간행되었다.

92) 『鏤板攷』 권4, 太極問辨 二卷 “本朝鄭述編. 首周子太極圖·朱子圖說解, 次朱子與二陸問答書, 次本朝李彥迪與孫【失名, 號忘齋】【忘齋名叔暉, 晦齋之舅】曹漢輔問答書, 蓋孫曹之論, 皆以無極二字, 歸之寂滅也.” 한편 태극문답은 星州 檜淵書院에도 소장되어 있었다.

93) 『鏤板攷』 권4, 近思錄 十四卷.

94) 『鏤板攷』 권6, 南冥集 五卷, 別集 九卷 “本朝宗親府典籤文貞公曹植撰. 植與李滉倡明道學於嶺之左右, 名亦相埒. 然植之學, 畦逕差異, 其文, 亦好奇驚高, 不似澁粹然於布帛菽粟也.”

95) 『鏤板攷』 권6, 浮查集 八卷 “本朝進士成汝信撰. 曹植門人也. 以篤行聞.”

96) 『鏤板攷』 권6, 德溪集 八卷 “本朝弘文館典翰吳健撰. 健, 少從曹植學, 篤於踐履.”

97) 『鏤板攷』 권6, 覺齋集 三卷 “本朝參奉河沆撰. 曹植門人也. 爲人清苦, 文亦不喜蹈襲前人”

원(德巖書院)에 소장된 조종도(趙宗道)의 대소헌집(大笑軒集)⁹⁸⁾이 그러한 책들이다.

전라도 지역의 서원·사우로는 우선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을 거론할 수 있다. 김인후의 하서집(河西集)·별집(別集) 책판을 보관하고 있다.⁹⁹⁾ 『누판고』에서는 초간본의 책판이 난리 통에 없어진 뒤 김수항과 박세채가 다시 편찬하여 간행했음을 밝히고, 김인후에 대해 “도학(道學)과 절의(節義)로 고금에 밝게 빛났다.”고 평가했다. 김인후의 학문이 뒷날 서인계와의 인연 속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목의 기언(記言)·별집(別集)을 소장했던 나주의 미천서원은 이와는 다른 학풍, 분위기 위에서 움직이는 곳이었다. 허목은 효종·숙종 대 정국에 남인의 영수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18세기에도 여전히 남인 학단에서 중시되고 있던 인물이었다. 『누판고』의 찬자는 책 여러 곳에서 허목을 활용하고¹⁰⁰⁾ 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¹⁰¹⁾ 기언과 관련해서는 “별집(別集)의 가변체(家變體)는 산만하고 잡다하여 의례(義例)를 고구할 수 없다.”¹⁰²⁾고 평가 절하했다.

충청도의 서원·사우는 연산의 둔암서원(遯巖書院), 니성의 노강서원(魯岡書院), 청주의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중심을 이룬다. 각기 김장생, 윤선거·윤증, 송시열과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이들 서원·사우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한 이후, 각기 호서 지역 노론과 소론의 근거지로서 기능했다. 송시열은 김장생의 학맥을 계승하며 이 지역 노론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구축했고, 윤선거·윤증 부자는 송시열과의 대립 위에서 소론의 구심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산출한 여러 책들은 개개 학자들의 사상, 학문을 펼치는 매개이자 당파·학과를 결속하고

98) 『鑿板攷』 권6, 大笑軒集 三卷 “本朝咸陽郡守忠毅公趙宗道撰, 曹植門人, 趙氏十忠之一也”

99) 『鑿板攷』 권6, 河西集 十四卷, 別集 九卷 “本朝弘文館校理文正公金麟厚撰, 麟厚道學節義, 炳烺今古. 盧守愼所稱詩得高岑遺韻者, 亦其緒餘也. 其稿, 舊有刊板, 佚於亂, 金壽恆·朴世采, 重編劂削. 附事實輓誄之類, 其西銘事天圖·周易觀象二書, 竟佚不傳.”

100) 『鑿板攷』 권6, 水色集 八卷 “本朝漢城府判尹陽陵君許(示+商)撰, 其文, 長於詞賦, 權輿, 以爲古色蒼然若瓦尊銅彝. 許穆序亦稱其詩, 出入景龍·開元之間.”

101) 『鑿板攷』 권6, 孤山遺集 六卷 “本朝禮曹參議忠憲公尹善道撰, 善道, 當顯宗初, 與許穆等, 論服制之失, 以詆宋時烈, 禮訟之所由始也.”

102) 『鑿板攷』 권6, 記言 六十七卷·別集 二十六卷 “係別集家變體, 散漫叢雜, 莫究義例.”

확장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했다.

연산의 둔암서원(遯巖書院)에 소장된 책관은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¹⁰³⁾ 상례비요(喪禮備要),¹⁰⁴⁾ 사계연보(沙溪年譜),¹⁰⁵⁾ 사계유고(沙溪遺稿),¹⁰⁶⁾ 김집의 신독재유고(慎獨齋遺稿)¹⁰⁷⁾ 등이다. 예학(禮學)에 밝았던 김장생의 학문, 김장생 → 김집으로 이어지는 가학(家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니성의 노강서원에는 윤선거(尹宣舉) 일가의 책관이 소장되어 있다. 윤황(尹煌)의 팔송봉사(八松封事)·부록(附錄),¹⁰⁸⁾ 윤선거의 노서유고(魯西遺稿)·부록(附錄),¹⁰⁹⁾ 윤증(尹拯)의 명재의례문답(明齋疑禮問答),¹¹⁰⁾ 명재언행록(明齋言行錄),¹¹¹⁾ 명재년보(明齋年譜)¹¹²⁾ 등 윤황 이래 3대의 자료, 그리고 윤선거의 외조부인 성혼(成渾)의 우계속집(牛溪續集)¹¹³⁾이 그것이다. 성혼의 학문과 이어지는 윤선거 가문의 학맥, 윤증에 의해 세워지는 소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다. 『누판고』 찬자는 윤선거와 윤증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만 윤선거가 평생 고심했고 또 송시열(宋時烈)이 그를 공격하던 빌미가 되었던¹¹⁴⁾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03) 家禮輯覽 十一卷. 本朝刑曹參判文元公金長生撰. 取諸家論辨, 刪繁掇要, 彙註于逐條之下, 又爲圖說弁首.

104) 『鏤板攷』 권2, 喪禮備要 二卷 “本朝金長生, 因申義慶所撰, 而修潤之. 蓋以禮易失於急遽凶變之際, 苟非素講, 難以應節. 本原家禮, 參以諸家, 間附時俗之制, 使可按而行之. 至今東人, 言喪禮者, 視爲券契.”

105) 『鏤板攷』 권3, 沙溪年譜 一卷 “本朝金長生紀年之譜, 裔孫憲編.”

106) 『鏤板攷』 권6, 沙溪遺稿 十四卷.

107) 『鏤板攷』 권6, 慎獨齋遺稿 十五卷 “本朝金集撰. 附碑狀之類. 集, 得家傳詩禮之學, 蔚爲一代儒宗. 富有著述, 是集外, 尙多佚篇, 未及嗣刻.”

108) 『鏤板攷』 권6, 八松封事 一卷·附錄 二卷.

109) 『鏤板攷』 권6, 魯西遺稿 二十卷·附錄 二卷.

110) 『鏤板攷』 권6 明齋疑禮問答 八卷 “本朝議政府右議政文成公尹拯門人編, 義例, 一倣疑禮問解.”

111) 『鏤板攷』 권3, 明齋言行錄 五卷 “本朝尹拯門人, 錄其師言行者, 旁孫光紹, 取諸人錄合編之.”

112) 『鏤板攷』 권3, 明齋年譜 六卷.

113) 『鏤板攷』 권3, 牛溪續集 六卷 “本朝議政府左參贊文簡公成渾撰, 外孫尹宣舉編.”

114) 이 일은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 일었던 ‘懷尼是非’의 주된 논쟁점 중에 하나였다.

崇禎 丙子亂 때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江都로 들어갔는데 성이 함락되자 微服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여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 도를 강론하였고 실천에 있어 독실하였다.¹¹⁵⁾

청주 화양서원은 송시열의 정서분류(程書分類),¹¹⁶⁾ 송자대전(宋子大全)·부록(附錄)¹¹⁷⁾ 등 두 종류의 책판을 소장했다. 『누판고』에서는 앞의 책은 주자어류를 모방하여 분문(分門) 유편(類編)했다고 하고, 뒤의 문집에 대해서는 주희의 주회암대전집(朱晦庵大全集)을 모방하여 ‘대전’이라 이름 붙였다고 서술했다. 화양서원에 소장된 송시열의 저술은 생각보다 적은 셈인데, 그가 편찬한 절작통편(節酌通編)·보유(補遺)¹¹⁸⁾는 영남관찰영, 문의통고(問義通攷)¹¹⁹⁾는 안동부(安東府)에 각기 소장되어 있었다.

경기도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서원으로는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과 화곡서원(花谷書院) 두 곳이었다. 서원의 수로 본다면 이 지역의 서원 문화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낮지 않았다. 송양서원에서는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 화곡서원에서는 서경덕의 화담집(花潭集) 책판을 소장했다.

포은집에 대해서는 세종, 선조, 숙종 대에 걸쳐 국가와 후손의 힘을 빌려 증보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했다.¹²⁰⁾ ‘이학(理學)’을 뿌리내린 인물로 높이는 조선의 일반적인 시선은 들어있지 않다. 화담집에 대해서는 구분(舊本)과 금본(今本)

115) 『鑊板攷』 권6, 魯西遺稿 二十卷·附錄 二卷 “崇禎丙子之難, 從廟社入江都, 城陷微服而歸, 自以臨難不死, 屢除官不就, 講道邱園, 篤於踐履.”

116) 『鑊板攷』 권3, 程書分類 三十卷 “倣朱子語類例, 分門類編.”

117) 『鑊板攷』 권6, 宋子大全 二百十七卷·附錄十九卷 “其稱大全, 蓋倣朱晦庵大全集云.”

118) 『鑊板攷』 권3, 節酌通編 三十六卷, 補遺 七卷 “本朝宋時烈編, 取李滉朱書節要·鄭經世朱文酌海而合編之, 其補遺七卷, 則二書之所未收者.”

119) 『鑊板攷』 권3, 問義通攷 三十四卷.

120) 『鑊板攷』 권6, 圃隱集 四卷, 續集 三卷 “高麗門下侍中益陽郡忠義伯文忠公鄭夢周撰, 正統中, 子宗誠, 進于朝, 寶文閣直提學權採奉教序之, 萬曆甲申, 宣祖又命弘文館提學柳成龍校證, 得遺文十七篇益之, 附傳狀誄詩, 令藝閣鑊印, 肅宗己亥, 十一代孫繼輝, 得詩文逸篇若干爲拾遺, 又倣朱子紀譜通編例, 編續集三卷, 分年譜·遺事·尙論, 祠廟·褒典·陳請·贊述·記題八目.”

두 판본이 있으며 구분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실려 있고 금본은 김용겸(金用謙)이 정정(訂定)했다고 소개했다.¹²¹⁾ 서경덕 학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특별하다. 이황의 비판적 시각에 대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경덕은 시골 구석에서 일어나 理數의 학문을 연구하였는데, 이황은 ‘異學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에게 方術을 하는 선비로 입에 오르내렸으나, 문집을 보면 몹시 平正하여 특이한 점이 없다. 이황의 말은 송나라 程頤가 邵雍을 논한 것과 비슷하다.¹²²⁾

황해도 의 소현서원은 이이 학문의 근거지였다. 이곳에는 성학집요(聖學輯要),¹²³⁾ 격몽요결(擊蒙要訣),¹²⁴⁾ 울곡집(栗谷集)·속집(續集)·외집(外集)·연보¹²⁵⁾ 등 이이 주요 저술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이의 학문은 17세기 이후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18세기에 와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 책판에는 그러한 모습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었다. 성학집요에 영조의 어제서(御製序)가 실려 있는 사실,¹²⁶⁾ 격몽요결이 영남관찰영을 비롯 8개 지역에서 간행되었던 사실¹²⁷⁾

121) 『鏤板攷』 권6, 花潭集 三卷 “集有二本, 舊本, 不知誰編, 清四庫全書, 載之別集類. 今刻本, 金用謙訂定, 附碑銘年譜及言行雜錄.” 화담집은 정조 초반까지 모두 다섯 번 간행되었지만, 누판고에서는 두 간본에 대해서만 소개했다. 『鏤板攷』가 조선의 간본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화담집 간행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8 『조선 후기 『화담집(花潭集)』 간행(刊行)의 추이(推移)와 서경덕(徐敬德) 학문』 『한국문화』 84 참조.

122) 『鏤板攷』 권6, 花潭集 三卷 “敬德起自鄉曲, 研窮理數之學, 李滉謂近異學. 故後世方術之士, 得以藉口, 然以集觀之, 殊平正無異. 滉之言, 蓋猶叔程之論邵子也.”

123) 『鏤板攷』 권3, 聖學輯要十 三卷.

124) 『鏤板攷』 권3, 擊蒙要訣 二卷.

125) 『鏤板攷』 권6, 栗谷集 十卷, 續集 三卷, 外集 一卷, 年譜 二卷.

126) 『鏤板攷』 권4, 聖學輯要十 三卷 “本朝議政府右贊成兩館大提學文成公李珥撰. 以眞德秀大學衍義, 猶欠汗漫, 倣其例, 採摭經史, 刪繁就要, 分爲五類, 曰統說·曰修己·曰正家·曰爲政·曰聖賢道統, 萬曆乙亥, 隨箋進于朝. 英宗朝, 進講于經筵, 御製序弁首.”

127) 『鏤板攷』 권4, 擊蒙要訣 二卷, “本朝李珥撰. 列叙立心·飭躬·奉親·接物之方, 自序云, 在海山時, 爲一二學徒作. 海州紹賢書院藏【刊】印紙一牒六張. 順天玉川書院藏, 印紙一牒一張. 泰仁校宮藏, 印紙一牒四張. 濟州牧藏, 印紙一牒六張. 嶺南觀察營藏【刊】印紙一牒五張. 關北觀察營藏【刊缺】印紙一牒十六張. 鏡城府藏【刊缺】印紙一牒六張. 關西觀察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누판고』는 율곡의 문집과 연보 간행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 책들은 여러 차례 곡절을 겪으며 간행되는데, 『누판고』는

원집은 성혼이 편집하고, 朴汝龍이 이어서 보완하였다. 박세채가 다시 이이의 玄孫 李紳을 좇아서 艸藁 9권을 얻어 정리하여 ‘續集’을 만들고, 또 ‘經筵日記’ 3권을 얻어 정리하여 ‘外集’을 만들었다. 연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李景臨이 지었고, 다른 하나는 박세채가 지었다.¹²⁸⁾

라고 서술, 문집과 연보 정리에 박세채의 노력이 컸음을 드러내었다.

소현서원은 유사규(柳思規)의 상유집(桑楡集),¹²⁹⁾ 김장생의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¹³⁰⁾ 책판도 소장하고 있었다. 상유집은 유사규의 아들 유순익(柳舜翼)이 황해도 감사로 재직 중에 간행하면서 이곳에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의미 있는 책은 근사록석의인데, 이 책은 정엽(鄭曄)이 김장생의 원고를 수정하고, 그 뒤에 송시열이 거듭 정정(訂正)한 뒤 간행했다. 이곳에 이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현서원이 갖는 비중 혹은 역할을 잘 보여준다.

18세기 조선에서 서원·사우는 확장하는 사회를 반영하며 발달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었다. 당파의 성장, 당쟁의 격화에 서원·사우가 근거지가 된다고 하여 국왕 권력의 금제와 압박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¹³²⁾ 이 학술 공간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요소는

營藏【刑缺】印紙一牒十張.”

128) 『鑊板攷』 권6, 栗谷集 十卷, 續集 三卷, 外集 一卷, 年譜 二卷.

129) 『鑊板攷』 권6, 桑楡集 二卷.

130) 『鑊板攷』 권3, 近思錄釋疑 十四卷 “本朝議政府左參贊文肅公鄭曄, 因金長生所撰本, 而修潤之. 長生序云, 讀近思錄, 到難會處, 采諸儒論說, 以釋之, 間附己見, 請鄭刊正, 鄭沒後, 其甥羅萬甲, 視其本中有一二可疑處, 恨未及鄭在世時評論歸一, 宋時烈, 重加訂正.”

131) 柳思規의 아들 柳舜翼이 황해도 감사로 있으면서 宋邦祚의 발문을 받고, 또 저자의 사위인 李顯英에게 서문을 받아서 1618년에 간행하였다(『桑楡集』 桑楡集序[李顯英] 및 桑楡集跋[宋邦祚] 참고).

132) 이를테면 영조대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英祖實錄』 권10, 2년 11월 10일 무술 “右副承旨金祖澤曰, 書院之弊, 不可勝言, 而書院設禁之後, 謂以影堂, 處處創立, 其弊一也, 請一體禁斷.”; 『英祖實錄』 권54, 17년 7월 1일 계해 “上引見大臣備堂. 命甲午以後冒禁私建書院者, 其時道臣罷職, 守令拿處”

다양하겠지만, 특정 서원·사우와 연관되는 인물의 도서 출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간행된 책이 학문적 사실과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책을 편찬하고 판각(板刻)하고 인출(印出)하고 보급하는 과정, 책판을 수장(收藏)하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특정 학단, 지역, 정치적 힘을 단단히 결속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누판고』에서 살필 수 있는 서원·사우와 그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은 그런 점에서 18세기 후반, 학술 활동과 지식 생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던 존재들의 지형을 풍부하게 담고 있었다.

『누판고』를 작성한 정조와 중앙 권력은 그 모습들을 조감하고 평가하면서, 그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의 성과들을 위계적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긴 시간을 들여, 정밀하게 진행된 그 작업은 그 자체로 당대 조선의 뛰어난 문화적 성취였다. 조선의 새로운 지적 성장과 변화에 『누판고』가 어떠한 역할을 할는지, 어떠한 지향을 제시할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판으로 존재하는 조선의 지식과 학술, 정보를 하나의 체계 속에 그것도 국가를 중심에 두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점에서 그 성공은 아마도 또 다른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맺음말

『누판고』는 전국에 존재하는 책판의 체계적 파악과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획은 정조 즉위 후부터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졌으나, 완성되는 데에는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 전국 단위의 장관부(藏板簿)를 마련하는 일, 책판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계통화하는 일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조와 정조 정부는 예전의 서목(書目)이나 책판 목록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책판 장부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누판고』에서는 어찬서, 어정서의 두 ‘어서(御書)’ 영역과 4부 27류의 분류 체

계를 갖추고 600종을 상회하는 책판을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와 간행·활용되는 ‘중국 도서’, 고려·조선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국가와 개인·학단 등의 여러 주체가 생산한 도서가, 책판 정보의 형태로 간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들 도서와 책판들은 18세기 말 현재, 조선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며 활용되는, 지식과 학술의 주된 내용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 세계, 학술의 면모를 살핌에 『누판고』는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누판고』의 정보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실들이 허무맹랑하게 날조된 것은 아니었다.

『누판고』의 ‘중국 도서’는 조선의 유학 - 성리학을 학습하고, 인류 문명사를 이해함에 기저적인 역할을 하는 종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국 도서가 당초 중국에서 생산되었던 시기는 대체로 송대(宋代)였다. 명대(明代)의 책도 일부 있었지만, 명말 혹은 청대의 책들은 찾아볼 수 없다. 18세기 조선에서, 명말 이후의 중국 학술, 중국 문화 위에서 출판된 책들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었지만, 책판으로 간행하여 이로부터 널리 새로운 지식을 얻는 상황은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도서’의 존재로부터 확인하는 지식과 학술의 면모는 흔들리지 않는 주자학(朱子學)의 영역이었다.

고려·조선인들이 생산한 도서의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학자 개인, 혹은 그 학자와 연관되어 활동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17~18세기 학파와 당파의 활발한 움직임과도 연결되는 이들의 활동은 이 시기 조선의 학술과 지식 세계를 직조하고 또 바꾸어 나가는 힘이었다. 『누판고』에서 이들의 움직임, 이들이 이룬 학문의 성취는 개별 도서 형태로 나타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원·사우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역 별로 주요한 역할을 한 학자, 혹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는 인물들의 저술은 대체로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특정 서원·사우에서 생산하고 또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지점에서 저서와 책판, 그리고 서원·사우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존재했다.

서원·사우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같이 유교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황해도나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간 유교 문화의 불균형, 나아가 인적 결속의 불균등성을 서원·사우의 존재 형태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지역 별로 비중 있는 서원·사우는 개성이 뚜렷한 학자가 구축한 학문 세계의 중심지였다. 도산서원(陶山書院), 동낙서원(東洛書院), 덕천서원(德川書院), 필암서원(筆巖書院), 미천서원(眉泉書院), 둔암서원(遯巖書院), 노강서원(魯岡書院), 화양서원(華陽書院), 소현서원(紹賢書院)과 같은 서원은 각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했던 특정 학파·정파의 교두보 역할을 했고, 이곳에서 간행되는 저술들은 이 서원에서 배향(配享)하거나 아니면 이들 향사(享祀) 인물과 연관이 있는 학자들의 사상과 학문을 지역 사회 혹은 전 조선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한 매체가 될 터였다.

『누판고』는 18세기 후반 조선에 존재했던 전국 각지의 공사(公私) 책판을 일목요연하게, 특별한 체계 위에서 분류하고 정리해두었다. 책판 - 책과 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지식, 정보를 이처럼 분명하게 조감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시기 조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지식과 학술, 정보의 장악이 권력의 강화와 운용에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책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본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회가 만들어낸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의 성과들을 위계적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누판고』의 성취는 18세기 후반 조선의 학술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조와 규장각은 책판으로 존재하는 조선의 사상과 학술, 정보를 국가를 중심에 두는 지식 체계 속에 정밀하게 위치시켰다. 정치나 학술에서 분쟁과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영·정조대의 꾸준한 노력이 이러한 결실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판고』 이후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누판고』가 표방하는 바 조선의 학술 세계를 국가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장악하려는 힘이 존재했다면, 그 반대 지점에는 이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힘들도 움직이고 있었다. 양자가 길

항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세기 조선 학술계를 움직이게 하는 주요한 동력을 살피는 이 점은 유의할 만한 요소일 것이다.

주제어 : 『누판고(鑄板考)』, 책판 목록, 국왕 정조, 조선의 학술, 18세기 후반의 조선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13), 심사완료일(2020. 3. 9)

〈附表〉 전국 소재 書院 · 祠宇 · 書堂의 책판 소장 상황

○配享은 대표적인 인물

○비고는 『鑲板攷』의 내용 활용

道\書院 · 册板	書院			所藏 册板	비고
	소재지	서원명	配享		
京畿道	開城	崧陽書院	鄭夢周	圃隱集 · 續集(集, 鄭夢周)	永川 臨臯書院에도 소장
		花谷書院	徐敬德	花潭集(集, 徐敬德)	舊本과 今刻本이 있으며, 후자는 金用謙 교정본.
慶尙道	慶州	龜岡書院	李齊賢	孝行錄(史, 李齊賢) 樸翁稗說(子, 李齊賢) 益齋亂稿(集, 李齊賢)	
		東江書院	孫仲噉	愚齋實記(史, 孫汝斗)	孫仲噉에 관한 자료
		龍山書院	崔震立	貞武公實記(史, 崔震立)	公州鎭 營將 최진립은 병자호란 때 龍仁 險川에서 죽음
		西岳書院	薛聰	帝王歷年通攷(史, 鄭克後) 西岳志(史, 鄭克後)	
		玉山書院	李彥迪	奉先雜儀(經, 李彥迪) 大學章句補遺 · 續或問(經, 李彥迪) 近思錄(子, 朱子 · 呂祖謙) 中庸 九經衍義(子, 李彥迪) 求仁錄(子, 李彥迪) 太極問辨(子, 鄭述) 晦齋文集 · 年譜 · 附錄(集, 李彥迪)	· 近思錄 = 중국 도서 · 太極問辨 = 성주 楡淵書院에도 소장
	尙州	近巖 鄉賢祠	洪彥忠	東國通鑑提綱(史, 洪汝河) 寓菴文集(集, 洪彥忠) 漢陰文稿(集, 李德馨)	
		道南書院	鄭夢周	蘇齋文集 · 續集 · 附錄(集, 盧守愼) 愚伏文集(集, 鄭經世) 頤齋集(集, 曹友仁)	
		西山書院	金尙容	仙源年譜 · 淸陰年譜(史, 金用謙) 仙源遺稿(集, 金尙容)	仙源年譜 · 淸陰年譜 = 仙源年譜(金尙容)와 淸陰年譜(金尙憲)를 합편
		淵嶽書院	康應哲	南溪文集(集, 康應哲)	
		玉成書院	金範	后溪集(集, 金範) 月磻文集 · 附錄 · 兄弟急難圖(集, 李埏) 蒼石集(集, 李埏)	金範 = 명종 대에 成渾 · 李恆 등과 함께 經明行修로 발탁됨

	興巖書院	宋浚吉	同春堂文集·別集(集, 宋浚吉) 洞虛齋文集(集, 成獻徵)	同春堂文集=文義 黔潭書院에도 소장
	鄭氏齋舍	鄭起龍	梅軒實記(史, 曹挺融·蔡休徵)	梅軒實記=鄭起龍의 일생
安東	鏡光書院	張興孝	敬堂集(集, 張興孝)	張興孝=김성일, 鄭述, 張顯光에게 배움
	魯林書院	南致利	賁趾文集(集, 南致利)	南致利=이황 문인
	默溪書院	金係行	凝溪實記(史, 玉世寶) 寶白堂實紀(史, 金承鈺) 雲川文集(集, 金涌)	·凝溪實記=홍문관 校理 玉沽의 사적 ·寶白堂實紀=弘文館 副提學 金係行의 사적
	屏山書院	柳成龍	懲愆錄(史, 柳成龍) 西厓文集·別集·年譜(集, 柳成龍) 梧里文集·附錄·續집(集)·附錄(集, 李元翼)	
	三溪書院	權檉	冲齋文集(集, 權檉)	
	柞溪書堂		麗澤齋遺稿(集, 權載運)	·書堂 ·權載運에 대해 “始爲邑掾吏, 既而去史學書, 以質行聞里中”
	周溪書院	具鳳齡	晦谷進學圖(子, 權春蘭) 柏潭文集(集, 具鳳齡)	具鳳齡=이황 문인
	虎溪書院	李滉	朱書講錄刊補(子, 李栽) 鶴峰文集(集, 金誠一) 晦谷文集(集, 權春蘭)	·朱書講錄刊補=이황 門人 기록, 李栽 刊補. ·權春蘭=具鳳齡, 李滉 문인
榮川	龜江書院	金淡	嘯臯集·續集·附錄(集, 朴承任)	朴承任= 이황 문인
	三峰書院	金爾音	勿巖集·年譜·附錄(集, 金隆) 晚翠集(集, 金蓋國)	金隆=이황 문인
	迂溪書院	李德弘	良齋集(集, 李德弘)	李德弘=이황 문인
	義山書院	李介立	省吾堂集(集, 李介立) 鶴沙文集·外集·年譜·附錄(集, 金應祖)	·李介立=김정일 문인 ·金應祖=강현광 문인
永川	環邱世德祠	鄭世雅	湖叟實紀(史, 鄭一鑽)	黃山道 察訪 鄭世雅와 生員 鄭宜蕃 자료
	龜川書院	權應銖	白雲齋實紀(史, 權弘運)	忠毅公 權應銖 자료
	臨臯書院	鄭夢周	圃隱集(集, 鄭夢周)	개성 崧陽書院에도 소장
	道岑書院	曹好益	家禮考證(經, 曹好益) 大學童子問答(經, 曹好益)	古鏡重磨方=영조 御製序

			心經質疑考誤(子, 曹好益) 古鏡重磨方(子, 李滉) 芝山文集(集, 曹好益)	
	梅谷書堂		涵溪集(集, 鄭碩達) 梅山集(集, 鄭重器)	· 書堂 · 鄭重器=碩達의 아들
禮安	陶山書院	李滉	經書釋義(經, 李滉) 啓蒙傳疑(經, 李滉) 退溪言行錄(史, 李滉 문인) 理學通錄·外集(子, 李滉) 朱子書節要(集, 李滉) 松齋集(集, 李堦) 雲巖逸稿(集, 金緣) 溫溪逸稿(集, 李滄) 退溪文集·續集·年譜(集, 李滉) 退溪自省錄(集, 李滉) 耻齋遺稿·附錄(集, 洪仁祐) 月川文集(集, 趙穆) 近始齋文集(集, 金堧) 溪巖文集(集, 金垠)	金垠=조목, 이황의 문인 金垠=金緣의 從孫, 이황 私淑
義城	藏待書院	申之悌	梧峰集(集, 申之悌) 敬亭集(集, 李民庇)	
仁同	東洛書院	張顯光	易學圖說(經, 張顯光) 旅軒年譜(史, 張舉) 性理說(子, 張顯光) 旅軒文集(集, 張顯光)	
豐基	愚谷書院	柳雲龍	息菴集(集, 黃暹)	
	郁陽書院	李滉	錦溪文集·外集(集, 黃俊良)	黃俊良=이황 문인
密陽	禮林書院	金宗直	彝尊錄(史, 金宗直) 佔畢齋詩集·文集(集, 金宗直)	
泗川	龜溪書院	李楨	龜巖集(集, 李楨)	
山淸	西溪書院	吳健	德溪集(集, 吳健)	吳健=조식 문인
善山	金烏書院	吉再	三仁錄(史, 善山 諸儒) 治隱言行拾遺(史, 吉興先) 兩賢淵源錄(集, 鄭鵬·朴英)	· 三仁은 高麗의 金澍, 조선의 河緯地·李孟專 · 兩賢淵源錄=1660년에 朴愷·金濡 편찬
	洛峯書院	金叔滋	龍巖文集(集, 朴雲) 眞樂堂集(集, 金就成) 久菴集(集, 金就文) 喚醒堂逸稿(集, 朴演) 健齋逸稿(集, 朴遂一)	· 朴雲, 金就成, 金就文은 朴英 문인 · 朴演=朴雲 아들 · 朴遂一=朴雲의 손자
	松山書院	崔應龍	敬菴集(集, 盧景任) 認齋文集·別集·年譜·附錄·續集(集, 崔覲)	· 盧景任=張顯光 문인 · 崔覲=金誠一 문인

	星州	柳溪書院	鄭崑壽	柏谷集·年譜(集, 鄭崑壽)	鄭崑壽=이황 문인	
		安峯影堂	李長庚	亨齋集(集, 李稷)	影堂	
		晴川書院	金宇顛	東岡集(集, 金宇顛)		
		檜淵書院	鄭述	大河圖·小河圖(經, 趙有亨) 五服沿革圖(經, 鄭述) 五先生禮說前集(經, 鄭述) 心經發揮(子, 鄭述) 太極問辨(子, 鄭述) 寒岡集·續集·別集·年譜(集, 鄭述)	· 太極問辨(자, 鄭述)=경주 玉山書원에 도 소장 · 鄭述=李滉·조식 從遊	
	安義	龍門書院	鄭汝昌	葛川文集(集, 林薰) 瞻慕堂文集(集, 林芸) 桐溪文集·附錄(集, 鄭蘊)	鄭蘊=趙穆, 鄭述 문인	
	晉州	大覺書院	河沆	覺齋集(集, 河沆) 松亭集(集, 河受一)	河沆=조식 문인	
		德川書院	曹植	南冥集(集, 曹植)		
		新塘書院	趙之瑞	知足堂忠烈記(史, 趙謙) 丹圃集(集, 趙希進) 槽巖集(集, 趙昌期)	知足堂忠烈記=侍講院 輔德 趙之瑞 및 처 鄭氏의 행적	
		臨川書院	成汝信	浮查集(集, 成汝信)	成汝信=조식 문인	
	淸道	仙巖書院	金大有	禮部韻略·玉篇(子)	禮部韻略, 玉篇은 중국 도서	
		紫溪書院	金駟孫	陽村入學圖說(經, 權近) 濯纓文集(集, 金駟孫) 滄溪集(集, 林泳)		
	咸安	德巖書院	趙宗道	大笑軒集(集, 趙宗道)	趙宗道=조식 문인	
		西山書院	趙旅	趙氏十忠實錄(史, 趙希孟) 漁溪集(集, 趙旅) 損菴集(集, 趙根)	趙旅를 '生六臣'으로 소개 趙根=송시열 문인	
		松汀書院	趙任道	澗松堂集(集, 趙任道)	趙任道=장현광 문인	
	統制營	忠烈祠	李舜臣	挹翠軒遺稿(集, 朴闇)	順天府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정조 御製序 실림	
	全羅道	古阜	道溪書院	金齊閔	鰲峰集(集, 金齊閔) 苔川集(集, 金地粹)	金齊閔=李恒 문인
		光州	義烈祠	金德齡	金忠壯遺事(御定書, 金德齡)	正祖 御製序
			褒忠祠	高敬命	霽峰遊瑞石錄(史, 高敬命) 霽峰集·遺集·續集(集, 高敬命) 正氣錄(集, 高敬命) 白麓集(集, 辛應時) 晴沙集(集, 高用厚)	· 霽峰遊瑞石錄=明徐 光啓의 서문 · 高用厚=고경명의 아들

	羅州	眉泉書院	許穆	記言·別集(集, 許穆)	
	礪山	竹林書院	李珥	伸冤牛栗兩賢疏(集, 李貴)	李貴=이이의 문인
	靈巖	鹿洞書院	崔德之	烟村事蹟(史, 崔珽)	藝文館 直提學 崔德之의 사적
	綾州	竹樹書院	趙光祖	靜菴集(集, 趙光祖)	綾州本은 찬자 미상, 安東府에朴世采가 편찬한 간본 소장.
	順天	玉川書院	金宏弼	景賢錄(史, 李禎) 擊蒙要訣(子, 李珥)	擊蒙要訣=해주 紹賢書院에도 소장
		芝峯書院	李晬光	昇平志(史, 李晬光)	
		忠愍祠	李舜臣	忠武公家乘(史, 李弘毅)	
	長城	筆巖書院	金麟厚	河西集·別集(集, 金麟厚)	
	長興	淵谷書院	閔鼎重	老峰集·附錄(集, 閔鼎重)	
	全州	石溪書院	金長生	喪禮備要(經, 金長生) 疑禮問解·續解(經, 金集)	喪禮備要是 遯巖書院에도 소장
忠淸道	錦山	從容祠	趙憲	重峰集(集, 趙憲)	1740년의 芸閣 활자본과 대비됨
	尼城	魯岡書院	尹宣舉	明齋疑禮問答(經, 尹拯) 三韻通考補遺(經, 朴斗世) 明齋言行錄(史, 尹光紹) 明齋年譜(史, 尹光紹) 牛溪續集(集, 成渾) 八松封事·附錄(集, 尹焯) 魯西遺稿·附錄(集, 尹宣舉)	· 三韻通考補遺는 蔚山府에도 소장 · 윤선거=金集 문인
	連山	遯巖書院	金長生	家禮輯覽(經, 金長生) 喪禮備要(經, 金長生) 沙溪年譜(史, 金憲) 沙溪遺稿(集, 金長生) 慎獨齋遺稿(集, 金集)	
	林川	七山書院	俞槩	家禮源流·往復書(經, 俞槩) 市南集·附錄·年譜(集, 俞槩)	
	文義	黔潭書院	宋浚吉	同春堂文集(集, 宋浚吉)	尙州 興巖書院에도 소장
	報恩	象賢書院	金淨	冲庵集(集, 金淨) 大谷集(集, 成運)	
	淸州	華陽書院	宋時烈	程書分類(子, 宋時烈) 宋子大全·附錄(集, 宋時烈)	宋子大全은 『朱晦菴大全集』을 따름
	韓山	文獻書院	李穡	稼亭集·雜錄(集, 李穀) 牧隱集·附錄·年譜(集, 李穡) 麟齋集(集, 李種學)	稼亭集·雜錄= 李穡 편, 1662년에 李泰淵 재간

江原道	○	○	○	○	○
黃海道	延安	顯忠祠	李廷菴	四留齋集(集, 李廷菴)	
	平山	九峯書院	朴世采	南溪年譜(史, 朴世采 후손)	
		雲峰祠	申崇謙	壯節公遺蹟(史, 朴世采)	
海州	紹賢書院	李珥	近思錄釋疑(子, 金長生) 聖學輯要(子, 李珥) 擊蒙要訣(子, 李珥) 桑榆集(集, 柳思規) 栗谷集·續集·外集·年譜(集, 李珥)	· 近思錄釋疑 = 鄭曄이 김장생 찬본을 수정 · 聖學輯要 = 영조 御製序 · 擊蒙要訣 = 순천 玉川書院에도 소장	
平安道	龍岡	鰲山書院	金安國	慕齋集(集, 金安國) 思齋集(集, 金正國)	
咸境道	鏡城	彰烈祠	鄭文孚	彰烈祠志·續志(史, 李端夏)	
	北靑	老德書院	李恒福	北遷日錄(史, 鄭忠信)	李恒福 北靑 유배 始末, 이항복의 曾孫 李世龜 訂正.

〈Abstract〉

The world of knowledge and Joseon scholarship in
Nupango(鏤板攷)

Jeong, Ho-hun *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Nupango* compiled in 1796, I looked at the topography of knowledge and academia formed in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Nupango* was Catalog of the woodblock which was owned by government offices, Seowon(書院), temples, and private houses in Seoul and its provinc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world of the Joseon Dynasty, which can be examined in *Nupango*, can be clearly confirmed through the personal writings in this book. The personal writings were published by intertwined powerful families and scholars in a certain area, including the compiler or the writer, and even after publication, they exerted considerable social influence. This phenomenon became more powerful since the 17th century, when the activities of academic schools and factions began to take place.

Nupango categorizes and organizes bookboard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that existed in the late 18th century Joseon in a clear and special system. Given that the control of knowledge, academic and information exerts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strengthening and operation of political power, the power that is qualified to access and read this book could have exercised enormous power.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original intention of this book was successful.

Key Words : *Nupango*(鏤板攷), the topography of knowledge and academia formed in Joseon, Catalog of the woodblock, the late 18th century Joseon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